

휴먼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청년들의 삶과 위기

EBS 다크프라임 〈청년〉 4부작의 텍스트 분석과 확장된
맥락적인 진단을 중심으로*

송동욱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석사**

허 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학부생***

기승연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학부생****

김수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학부생*****

신주영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학부생*****

박진형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학부생*****

황경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객원교수*****

이기형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연구는 휴먼다큐멘터리의 양식을 활용하면서 제작된 EBS 〈다큐프라임〉 ‘2017 시대탐구 청년’ 4부작의 스토리텔링적인 특성과 사회문화적인 함의를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청년 문제’를 둘러싼 매체들의 의미작용에 관한 해독과 관련 지식 작업들과의 상호비교적인 탐구와 연계를 통해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총 4부작으로 구성된 이 연작은 메탄을 사건 실명 피해자와 공장에서 노동하는 청년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제도적인 과정에 참여하지만 결국엔 실망하게 되는 청년,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겨운 청년, 그리고 입사한 직장에서 몰이해와 차별을 겪으면서 자신의 행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초상을 비교적 담담하게 제시한다. 필진은 〈청년〉 연작이 복합적인 서사와 증언에 가까운 청년층의 발화를 크게 수렴하면서, 단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활동상이나 차별적인 위상을 내밀하게 재현하는 측면에서 ‘선한 의도’와 함께

* 이 논문은 2018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동작업의 초본에 관하여 학술대회에서 연구진이 곱씹을 조언과 비평을 제시해주신 두 분의 선생님과, 제출된 원고에 상당한 조언과 비판적 관찰점을 주신 심사를 담당하신 세 분의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Sdongo@hanmail.net

*** heohyeon95@gmail.com

**** kiseungyeon@hanmail.net

***** shju0722@naver.com

***** hhjy123@naver.com

***** too462@naver.com

***** kajaah@khu.ac.kr

***** barthes@khu.ac.kr, 교신저자

일정한 성취를 보인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 기획은 청년층이 대면하는 문제점과 사회 내 몰이해에 관한 관찰점과 환기성이 갖든 메시지의 구현에는 성공적이지만, 보다 선이 굵고 치열한 문제의식이나 이를 체화하는 다류의 양식성과 대안적 구성을 다각도로 숙고하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관성이나 한계를 드러 내기도 한다.

KEYWORDS 청년층의 삶과 위기, 휴먼다큐멘터리의 역할과 명암, 텍스트분석, 생존(주의), 맥락성의 추구

1. 문제의 제기: ‘성과사회’의 극심한 압박과 ‘생존주의’의 추구 속에서 불안해하는 청년들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관심, 그리고 다수 기성세대에게는 충격과 놀라움을 생성한 ‘헬조선’ 현상으로 표출되는 냉소적인 감정의 분출이 시사해주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층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생존의 조건 속에서 부유하며 갖은 노력을 쏟아붓지만, 그런 동시에 매우 불안해하고도 있다. 특히 극심한 구직의 난점과 치열한 경쟁 속에 놓인 이 시대 청년들이 느끼는 팽배한 불확실함과 좌절감, 사회적 소외와 불안감, 그리고 냉소와 온전히 품어내기 어려운 소망은 매체나 시민사회 영역 내 활동가와 전문가 집단의 관심을 넘어, 이제 학술영역에서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강정석, 2018; 김상민 외, 2013; 김선기, 2016; 2018; 김애린 외, 2016; 이광석·윤자형, 2018; 이양숙, 2016; 천정환, 2018; 한선, 2013).

이 연구는 ‘지금, 여기에서’ 다수의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과 생존의 조건을 둘러싼 함의와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당대 청년들의 굴곡진 삶을 상세하게 조명하는 방송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성취와 한계에 관한 복합적인 차원의 텍스트분석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팀은 특히 다양한 집단의 청년들이 등장하면서 표출하는 경험과 관점에 주목한 공영방송의 다류연작을 당대의 문제적인 상황을 재현하는 복합적이면서 ‘징후적인 문화 텍스트(symptomatic cultural text)’로 정의하면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텍스트가 발휘하는 구성적인 특성과 추구된 문제의식, 그리고 구현하는 다류의 양식성에 관한 조밀하고 비판적인 진단을 추구한다. 그와 동시에 이 기획을 진행하면서, 연구진은 분석의 대상이 된 텍스트의 내부 의미구조와 서사적인 특성에만 눈점과 시선을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의 삶을 재현하는 공적인 다류작업이 발휘하는 재현작용의 명과 암을 둘러싼 보다 확장되고 맥락적인 탐구를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두고자 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가로지르는 지식영역의 경우, 청년 주체들이 극단적인 경쟁이 현실화한 상황 속에서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삶의 행로를, 청년층 일부가 표방하는 삶의 양태와 집합적인 감정의 발현을 중심으로 근접해서 탐구하는 참여지향적인 연구(김홍중, 2016; 송동욱·이기형 2017; 오찬호, 2013; 정수남·김정환, 2017; 최종렬, 2018)나, 탐색적인 인류학적 접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작업들도 꾸준히 등장하고도 있다(엄기호, 2010; 조문영 외, 2017; 조한혜정 외, 2016; 천주희, 2016). 이 같은 상당한 현실반영적인 노력들이 깃든 주요 기획들 속에서, 청년들에게 밀착하며 그들의 움츠려든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생동감 있는 현장성과 유려한 서사의 힘이나 두꺼운 서술(thick description)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정한 노력들이, 아직 사회과학 내 주류적인 흐름을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적인 제도영역에서도 많은 진통 끝에 경기도에서는 ‘청년배당’,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과 같은,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 문제에 대응하려는 정책들이 일부 실현되기도 했다. 또한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청년 일자리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현 문재인 정부 또한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하면서 “2018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와 정치적 차원의 흐름과 변화는 ‘청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한국 사회의 주요한 문제인 동시에, 어떤 즉각적인 해결이 난망한 난제로 공론화되고 있는 복합적인 측면을 시사해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년 문제는 유의미한 수준의 제도적인 개입과 정책의 주도 아래, 더욱 포괄적인 변화와 특히 괄목할 만한 개선점을 생성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현실 속의 위중하고 긴요한 ‘문제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연구의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학자 김홍중(2016)은 “생존주의”라는 개념으로 당대 청년들이 구현하는 지배적인 ‘마음의 레짐’을 개념화하고, 관련 핵심 징후들을 치밀하게 읽어낸 바 있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삶의 경쟁상황에서 도태되지 않고 각자도생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켜”(257쪽)야만 하는 장기적인 동시에 출구를 쉽사리 찾기 어려운 고단하고 불확실한 ‘서바이벌 게임’을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즉 생존을 위해, 그리고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거의 모든 역량을 투사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무한경쟁의 상황 속에서 체화하는 불안정한 조건과 집합적인 압박은 그들의 응축된 ‘마음의 풍경’을 직조하는 동시에 조각내며 술한 상흔들을 축적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17년 EBS <다큐 프라임> 4부작 ‘2017 시대탐구 청년, 평범하고 싶다’(이하 ‘<청년> 연작’)은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삶을 이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중심으로 –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련의 청년층이 제기하는 발화와 축적된 현실에 대한 스

스로의 인식과 관점을 크게 수렴하면서- 구성된 다큐기획이다. 예컨대 이 기획 작업은 전반적인 서사의 구성과 투사되는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기성 청년 다큐와 비교할 때, 보다 많은 청년들을 등장시키며, 이들의 발화와 체험을 대폭 수용하면서, 수용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집약적인 노력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휴먼다큐멘터리 계열에 속하는 이 텍스트는 청년들이 공적인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위태롭고 혼란스러우며, 우호적이지도 않은 현실 속의 주요 단면들을 비교적 생생하게 포착해냄으로써, 공적인 차원에서 이 시대 청년층이 체감하는 난점과 좌절감이나 희망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용자집단에게 ‘환기’시키려는 복안과 강조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자전적인 동시에 사회현실이 주는 압박을 일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례들이 스토리텔링 전반에 다수 배치된다. 이 기획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텔레비전 휴먼 다큐작업들과 비교할 때, 일단 표면적인 층위에서 섭외된 청년들의 목소리나 고민과 경험에 크게 주목하면서, 고단하게 삶을 영위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상황과 이들이 체감하는 난점을 다양한 방편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을 채용한다. 그런 동시에 ‘청년들의 위기’로 호명되는 현 상황의 함의나 맥락성을 선이 굵은 방식으로 조망하면서 풀어내거나, 특히 전문화된 진단과 함께 심화되거나 논쟁적인 해석을 제기하는 ‘외부자’들의 논점은 스토리텔링 속에서 크게 중용되지 않는 면모를 드러낸다.

조금 다르게 〈청년〉 4부작은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2008년 이후 다양한 현안과 소재들을 꾸준히 다루는 유형의, 그간에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이나 평판을 발휘해 온 EBS의 간판급 프로그램인 〈다큐 프라임〉의 이름을 걸고 생산된 연작 중 하나이다. 제시된 제목 속의 중장기적인 설정인 ‘시대’라는 수사적 표현이 시사해주듯이, 〈청년〉 연작은 한국 사회 속에서 심대한 사회적 이슈로 지목되는 ‘청년 문제’에 관한 공적인 대응이자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영된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단행본을 발간할 만큼 사회적으로 상당한 존재감을 보이는 EBS 〈다큐 프라임〉에 관한 학술 작업들은 그리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2017년의 신년 기획으로 이 시대 청년층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핵심적인 주제로 다룬 〈청년〉 연작에 대한 학계나 비평영역 내 주목은 크게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진은 앞서 거론한 측면에 주목하면서, ‘청년’과 ‘다큐멘터리’라는 핵심 주제를 엮어내는 EBS의 〈청년〉 연작에 관한 분석을 도모하게 되었다. 연구진은 5인의 학부생과, 1인의 대학원 졸업생, 그리고 2인의 문화연구를 전공하는 교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속 대학에서 개설한 〈독립심화학습〉이라는 탄력적인 강의와 공부모임을 활용하였다. 연구팀은 2018년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매주 3시간 정도의 모임을 1회 이상 가지면서 광의

의 청년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저작과 논문들, 그리고 (연작)기사와 비평문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동시에 문제의식을 함께 버려내면서, 구체적인 분석의 수순과 과정을 협업의 방식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집합적인 방향성을 추구하면서,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성장이 멈춘’ 시대에 발현되는 청년들의 삶의 조건과 행로에 주목하는 일련의 지식 작업들 속의 진단을 수렴하면서, 〈청년〉 연작이 포착한 청년들이 영위하는 삶의 양상과 비교하고 관련 사안들 간의 밀접한 연계와 조합을 통해서, 보다 ‘중층적인’ 방식으로 EBS 다큐텍스트의 역할과 함의를 진단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였다. 또한 단순히 개별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해독하는 작업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학술 자원들 중에서 특히 김홍중이 고안한 ‘생존주의’ 개념을 활용하면서, 〈청년〉 연작이 제기하는 재현의 특징과 성취, 그리고 한계를 다면적으로 짚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청년의 삶과 위기를 탐구하는 관련 방송 다큐멘터리들을 비교의 자료로 활용하면서, EBS 〈청년〉 연작의 내적인 의미구조와 스토리텔링 방식에 관한 세밀한 조명과 함께, 이 텍스트가 발휘하는 확장된 재현작용에 관한 비판적인 진단과 사회적인 함의의 모색, 그리고 성취와 한계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간략하게 이 장 이후에 등장할 분석의 순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 연작이 드러내는 서사전개의 특징과 주제의식을 먼저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현된 인물상의 구현을 텍스트가 발휘하는 선택적인 조명과 주변화의 효과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해독한다. 나아가서 〈청년〉 연작에 녹아든 다큐적인 시선과 문제의식의 구현을 복합적으로 탐구하면서, 특히 그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다큐멘터리 이론가 빌 니콜스(Bill Nichols)가 개진한 다큐멘터리의 양식성을 일부 변용한 ‘관조적 양식’, ‘서술적 양식’, ‘은유적 양식’, 그리고 ‘수행적 양식’을 매개로 한 더 상세한 분석과 문제제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핵심 대상으로 삼는 다큐작업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숙고할 측면에 관한 비판적 제언을 제시한다.

2. 공적인 가치를 발휘하는 EBS 다큐멘터리들의 위상과 함의

1) EBS가 생산하는 다큐멘터리가 발현하는 특징들

이 장에서는 〈청년〉 연작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맥락적인 진단을 본격적으로 개진하기에 앞서, EBS가 체화하고 있는 공적인 정체성에 관한 조명과 함께, 그간에 제작·방영한 주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특성을 〈다큐 프라임〉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EBS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교양 기능에 주로 주력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그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상업방송이 간과하기 쉬운 콘텐츠의 공급 및 사회적 소수·소외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방송 서비스를 제공”(강상현, 2012, 420-421쪽)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EBS는 2000년 3월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학교교육 보완’, ‘국민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 발전’이라는 세 가지 주요한, 교육적인 동시에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제도적인 책무 역시 담당해왔다. 이 같은 과정을 밟아오면서 EBS는 인문, 문화, 자연, 건강, 테크놀로지 등의 특화된 주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식과 교양 부문에 속하는 양질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매우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방영하고 있는 매체로 평가된다(이영주·김진혁, 2009).

EBS의 다큐 작업 중에서 특히 상당한 주목을 받아온 〈다큐 프라임〉의 전반적인 지향점은 이 프로그램이 주창한 “삶을 논픽션으로 담아내는 것”, “Life is documentary”, “세상을 50분이라는 시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것”과 같은 세 개의 슬로건 속에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즉 다양한 사회 내 주체들의 삶을 ‘논픽션’ 장르의 화법과 변주된 문법으로 표현해내며, 삶이 곧 다큐멘터리에 준한다는 측면은 다큐멘터리 본연의 기능인 ‘기록’과 사유를 진작시키는 진지한 ‘관찰’의 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모하되, 현실의 감각적인 포착과 이를 통한 환기효과와 수용자 층을 대상으로 한 공감의 확산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판단되기도 한다. 또한 ‘세상을 50분이라는 구성 속에 재구성’한다는 발상은 다큐멘터리를 ‘현실의 창조적 가공(creative treatment of actuality)’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 존 그리어슨의 제언과 접맥되는 동시에, 제작진의 기획의도와 집중력의 추구를 조합시켜 녹여내려는 시각으로 해독되기도 한다(Barnouw, 1993/2000). 정리해보면, 〈다큐 프라임〉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목적은 최대한 압축적이면서 창의적인 방식을 모색하면서, 또한 포착한 세계나 인물 또는 특정 사회적 트렌드의 일부를 재구성하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유의미한 공적 가치와 앎, 그리고 더욱 확산된 담론작용과 인식의 확장을 매개하려는 작업이라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상당한 가시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TV 다큐멘터리로서의 EBS 〈다큐 프라임〉이 다른 다큐멘터리들에 비해 공적인 반향이나 담론생산의 측면에서 ‘논쟁적인’ 소재나 치열하게 논점이 부각되는 매개의 방식을 선택하는 전략을 크게 구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큐 프라임〉은 상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매우 다양한 주제나 더 광범위한 사안에 관해 비교적 다면적인 재현작업과 상당한 (현장)노동을 통해서 구현된 내용들을 포함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구축한 시선과 태도는 ‘온건한’ 편이며, 치열하게 특정 사안의 함의나 쟁점, 그리고 사회 내 ‘갈등적인’ 면모를 선이 굵게 재현하는 작업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다수의 방영된 작업들 속에서, 특히 주목받는 특정한 사회문화적인 사안의 재현과 관련하여, 〈다큐 프라임〉 제작진의 의도와 개입적인 판단이 비교적 강하지 않게 표출되는 화법과 직설적이기보다는 신중한 톤으로 개진되고 있는 측면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같은 입장을 풀어보면, 특정 공적인 쟁점을 보다 치열하고 논쟁적으로 파고드는 방안이나 갈등적일 수 있는 사회 내 사안의 조명과 해석과정에서 마찰과 대립을 ‘조율’하는 방식의 노력과 조심스러움이 EBS가 생산한 다큐 텍스트들 내부에서 상당 부분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2007년 12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EBS의 교육 관련 뉴스 보도는 허가되었지만, 교육 관련 해설과 심화된 비평이나 선명한 논의를 포함하는 관점이 강하게 녹아든 보도가 여전히 제어되고 있는 제도적인 측면은 EBS가 체화하고 있는 ‘온건한’ 동시에 ‘중도’를 지향하는 기조의 흐름과 맥락적인 효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요컨대 〈지식채널e〉와 〈다큐 프라임〉과 같은 EBS의 핵심 콘텐츠들의 경우, 기계적인 균형성을 벗어난 가치개입적인 성격을 일부 띠기도 하지만, 그런 동시에 비교적 덜 논쟁적인 소재에 주목하거나 정치적인 쟁점이나 갈등을 치열하게 파고들기보다는 인권이나 광의의 ‘인본주의적인’ 주제로 수렴되는 문제의식과 관련된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 즉 변화하는 사회적인 기류나 특정한 사회문화적 트렌드의 재현과 관련하여, 〈다큐 프라임〉이 종종 특정한 이슈에 관하여 쟁점을 극화시키거나 강하고 직설적인 톤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관련 사안을 조율하며 설파하는 입장을 적지 않게 견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EBS가 양산하는 다큐텍스트들은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나는 실험적인 양식성의 추구보다 이미 확립된 관습적인 형식 내에서의 일정한 변화나 변주를 주로 도모하며, 대안성이나 급진적인 양식의 변화가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이는 EBS가 생산하는 다큐만의 한계라기보다는, 지상파 TV 다큐멘터리가 종종 대면하는 제도화된 조건이자 관행적인 특징이라고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작 환경과 방식이 상이한 영화 다큐멘터리와 TV 다큐멘터리는 문법적이고 미학적인 양식을 망라한 다양한 차별적인 특징과 더불어 상이한 전통을 지닌다.¹⁾ 니네(Niney, 2009)

1) 니네(Niney, 2009)는 영화 영역의 다큐멘터리와 텔레비전 영역의 다큐멘터리를 각각 광의의 “창작”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사안에 대한 “리포르타주(reportage)”에 가까운 성격을 차별적으로 구별하는 작업으로 양분한 바 있으며(차민철, 2014 참고), 이종수(2004)는 다큐멘터리가 역사적으로 “영화적 에세이”로 출발하였지만, 텔레비전의 지형 속에서 “확장된 뉴스 보도”의 형태로 변화하는 특정한 면모를 발현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TV 다큐멘터리는 “관습화한 원칙을 교육받은 전문 인력들의 협력”(차민철, 2014, 95쪽)을 통해서 제작되며, 방송사의 제도적 이해관계나 협의된 내부문화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화 다큐멘터리는 “[일정한 미적 감각과 사회적 개입을 표방하는] 작가로서 연출자”(차민철, 2014, 96쪽)의 역할을 중심으로, 종종 더 치열한 방식의 기획과 증폭된 문제의식, 그리고 미학과 실험성을 숙고하면서 제작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TV 다큐멘터리라는 구성물이 대중적이고 익숙한 서사와 설득의 전략을 취하게끔 만드는 제도적 실행과 내부의 문화 및 관행의 결합 속에 복합적으로 협의되고 구현된 결과물이라 추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 TV 다큐멘터리작업이 “규격화”(96쪽)되거나 논란을 회피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사례들도 주기적으로 관찰된다.

앞서 언급한 측면을 조금 더 논하자면, TV 다큐멘터리는 “대부분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리얼리즘 재현 관습, 즉 일종의 기호 체계에 대한 사회적 약속에 기초”(이종수, 2004, 71쪽)하고 있는 동시에, 선택된 특정한 의미를 ‘자연화(naturalized)’함으로써 일종의 관행화된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작용하는 확립된 담론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최현주(2006) 또한 TV 다큐멘터리를 ‘제도와 관습의 산물로서, 프로그램 장르마다 형성된 일정한 관습에 따라 현실을 구축’하는 구성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휴먼다큐멘터리로서 〈청년〉 연작은 “시청자와 사회적 행위자 간에 형성될 수 있는 감정 이입”(이종수, 2004, 75쪽)이나 급진적이지 않은 유형의 현실조응의 힘과 확산된 관심의 필요성을 공공적인 의제로 설파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방향성을 적지 않게 드러낸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매체에 따른 다큐생산의 특성이나 기획과 구성과정에서 발현되는 상이한 방향성과 특화된 맥락성의 문제를 다면적으로 다루는 학술작업은 매우 간헐적으로나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EBS의 핵심 프로그램이자 이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대상인 〈다큐프라임〉의 텍스트적인 특성이나 채용하는 관점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당히 미진하게 개진되었다(김혁조, 2011; 신정아, 2010; 장민정, 2014; 홍의권, 2013).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면, 소수의 추구된 관련 연구들도 주로 특정 주제에 집중하여 분석이 치우치거나, 테크놀로지 측면의 새로운 시도와 기획을 중심으로 논의와 토론이 제공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다. 예를 들면, EBS가 생산하는 다큐작업과 관련된 세 편의 연구 중 두 편은 CG와 VFX 기술로 현대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오래전에 멸종한 동물들의 일상을 가상적으로 구현했던 〈한반도의 공룡〉(신정아, 2010)과 〈마리온 이야기〉(김혁조, 2011)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나머지 한 편은 다큐멘터리의 제작자이기도 한 홍의권(2013)이 1년여 동안 복수의 지역에서 촬영된 기생충 시리즈인 ‘기생(寄生)-PARASITE’에 대하여 활용된 제

작기술과 제작환경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런 유형의 작업들은 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화제성을 놓고 첨단 영상의 구현에서 새로운 면모를 발현하는 시각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생산의 트렌드변화와 관련된 일정한 진단과 더불어 지적인 기여를 보여주지만,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적이라 할 공적인 이슈와 문화변동의 문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특정한 사회문화적인 트렌드와 함의를 진단하는 작업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지적 자원으로서의 기여를 하지 못한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EBS가 제작한 <다큐 시선> 등의 일련의 기획이 한국 사회 내 공적인 쟁점이나 주요 사회적인 트렌드,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삶과 공유되는 고민들을 적지 않게 조명해온 측면을 고려할 때, '88만 원 세대'나 '삼포세대', 그리고 '헬조선현상' 등으로 지칭되는 청년 문제 관련 주요 이슈들을 포괄하는 공적인 쟁점을 재현하는 다큐텍스트의 위상과 특성에 관한 지식생산과 학술적인 차원의 연구는 여전히 상당히 정체된 상황인 것이다.

이 연구는 EBS가 시도한 <청년> 연작을 통해서 어떠한 공적인 가치의 추구하고 더불어 주목할 만한 문제의식이 발현되고 있는지의 측면이나 성과와 한계의 단면들을 복합적으로 탐구하면서, '청년'이 TV 휴먼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재현되는 방식을 맥락화시켜 접근함으로써, 앞서 지목한 지적인 공백을 채우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2) 한국의 텔레비전 휴먼다큐멘터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특성과 한계

이 연구의 핵심 분석대상인 <청년> 연작은 TV 휴먼다큐멘터리의 장르적이고 문법적인 관습성을 상당 부분 드러낸다. 이 측면의 분석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이 절에서는 우리사회 방송영역에서 제작·방영된 휴먼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삼은 기존 연구들의 갈래와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TV 방송사에서 휴먼다큐멘터리가 등장한 시점은 통상적으로 1960년대 말로 추정된다. 이에 관해 이종수(2002)는 1968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의 지상파 방송국에서 제작되고, 방영된 모든 휴먼다큐멘터리 텍스트를 분석한, 범주와 진단의 폭이 매우 넓으면서 상당한 의의를 발휘하는 연구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그의 연구는 '유미한 정치경제적 전환'과 '제작상의 제도 환경의 변화'라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 거시적이면서 역동적인 맥락 속에서 텔레비전 영역의 휴먼다큐멘터리가 발현해온 특성과 변동의 궤적을 진득하게 추적해낸다.

이 작업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이전 약 30여 년에 걸쳐 국내 텔레비전 영역에서 방영된 휴먼다큐멘터리는 시대에 따라 특수한 차이성을 발현하기는 하지만, 특히 당대의 핵심적인 변화의 동인이라 할 근대화 과정의 여파를 주목할 요건으로 삼으면서,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실향민 의식’과 그 과정에서 표출된 ‘가족관계’의 변화와 ‘촌락공동체적 유대감’, 그리고 ‘정’을 추구하는 유대적인 가치 등을 공통적으로 담아낸 바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장기간에 걸쳐서 존재해온 휴먼다큐멘터리 속에서 관찰되는 사적인 관계와 친밀성의 영역에 대한 강조는 “산업화, 도시화의 사회적 변동 속에서 개인화와 자유에의 갈망과 동시에 공동체적 소속감으로의 복원을 원하는 이중적 정서”(61쪽) 속에서 이른바 ‘감정적 완충재’로 작동했다는 측면을 조명해낸다.

하지만 1997~1998 외환위기의 발발 이후 TV 휴먼다큐멘터리는 상당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홍연주와 조인희(2011)는, 이 국면에서 크게 불안정해진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주체들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조명되던 ‘유명인사’가 아닌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온정적인 시선이나 배려와 관심을 엮어내며 포착하고자 하는 휴먼다큐멘터리가 다른 장르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 주목한 바 있다. 초기 한국의 휴먼다큐멘터리가 ‘사회봉사 교육’, ‘새마을운동’, ‘불우환경 극복’ 등 국가 주도의 근대화 정책에 부합하는—다분히 ‘계몽적’이거나 예측 가능한—주제를 주로 채택한 반면에,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등장한 다수의 휴먼다큐멘터리 작업들의 경우 소소한 이야기나 평범한 이들의 삶과 행로 속에서 수용자들에게 감동과 정서적인 반향을 유발하고, 재미와 공감을 주기 위한 드라마틱한 주제들을 선정함으로서 시청률 증대에 부응하는 면모를 드러내게도 된다.

한편, 2010년대 초반에 지상파 방송국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의 (비)언어적 특성을 분석한 이현숙(2012)은 이 시기의 휴먼다큐멘터리가 “과거 기록적이고 [협소하게] 저널리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드라마와 같은 미니시리즈 형식을 혼용”(244쪽)하는 흐름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조명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휴먼다큐멘터리가 기존에 주목하던 특별한 인물의 성공신화 대신에 “주로 ‘보통 인물’을 중심으로 ‘자연적인’ 배경 속에서 ‘일상’을 소재로 제작”(263쪽)되는 경향성을 강하게 드러내며, 수집된 기록이나 증거적인 차원의 이미지들의 구현을 넘어 과거와는 차별적이면서 보다 극적이면서 감성적인 영상기법을 적극적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이 같은 변화상을 고려하면, 이 작업의 분석 대상인 〈청년〉연작 역시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 살아가며 고군분투하는 다수 청년들의 ‘일상적인 삶과 그늘’을 세밀하게 포착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지난 십여 년간 구현되고 있는 휴먼다큐멘터리 작업의 일정한 연속 선상에 위치한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앞서 거론한 연구들은 방송영역 내 휴먼다큐멘터리가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인 전환점과 맞물리면서 구현되는 지점에 크게 주목하며, 시기별로 변화하는 다큐멘터

리 장르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주로 개괄적으로 비교·분류하는 데 방점을 둔 작업들이다. 그런 이유로, 선행하는 연구들은 휴먼다큐를 표방하는 텍스트의 특징과 이 측면에 연동되는 확장된 의미작용이나 특히 새롭게 추구되는 다큐재현의 전술과 양식의 변화 등을 둘러싼 명암과 관점의 차별성을 심도 있게 진단하는 작업에는 크게 이르지 못한다.

조금 다르게 2010년 이후에 등장한 일련의 연구들 속에서, 휴먼다큐멘터리 텍스트를 선별하고, 분석대상이 된 기획의 내용적 측면이나 서사적인 구성에 관한 진단과 함께, 특히 제작진이 수렴하거나 개진하는 관점들이 발휘하는 ‘문화정치적인’ 의미화의 성격과 명암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새롭게 추구되기도 했다(심훈, 2012; 양정혜·노수진, 2012; 이노미, 2015; 장민정, 2014; 홍지아·김훈순, 2010). 예컨대 이 계열의 연구들은 다문화주의나 사회적 혼종성의 부상 등과 같은 한국 사회 속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과거와는 매우 차별적인 변화의 양상을 (불균등하게) 반영하면서, 휴먼다큐멘터리가 이주민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주체들을 포착함으로써, ‘우리’라는 상징적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소수자나 ‘타자’들의 삶과 애환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며, 관련 사안의 공적인 한 기효과나 과거와는 비교되는 의제의 확장과 대안성을 도모하는 순기능에 주목한 바 있다.

동시에 이들 연구들은 그러한 변화된 재현의 정경 속에 작용하는 과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보다 다원화된 사회문화적인 가치들의 구현이 여전히 미온적이거나 재현대상의 ‘타자화’와 같은 쟁점이 상징적으로 충분히 극복되지 못하는 관성을 비판적으로 탐문하기도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축적된 휴먼다큐멘터리의 계보적인 맥락성의 변화 속에 기존 청년 관련 방송 다큐멘터리 텍스트들을 교차시켜보면, 휴먼다큐멘터리가 청년들을 재현하는 방식들의 특성이나 의미 또는 한계에 관해서 보다 집약적이거나 심화된 문제의식을 개진하면서 상세하게 탐구의 노력을 기울인 지식 작업은 크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야기의 흐름을 돌려보면, 〈88만원세대〉의 등장과 함께 불안정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조명하는 일련의 청년세대 관련 담론들이 대거 출현하게 되면서(이우창, 2016), 이들의 애환과 고민, 불안정한 행로, 그리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거세지는 환경 속에서 구현되는 청년층의 일상과 삶의 편린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휴먼다큐멘터리들이, 특히 ‘헬조선 담론’이 가시적으로 크게 부상한 2015년도를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상당히 확산된 바 있다. 2018년 5월까지 지상파에서 지난 3년간 방영한 청년 관련 다큐의 주제와 특징을 압축시켜 논하면 〈표 1〉에서처럼 정리된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지상파에서 제작·방영된 ‘청년’의 삶을 조명하는 TV 휴먼다큐멘터리 중 본 분석 대상인 〈청년〉 연작이 주요하게 다루는 ‘생산직 청년’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공장 노동자 청년’, ‘최저임금으로 생존하는 청년’, ‘청년 취업’, ‘해외 청년’을 조명하

표 1. 지난 3년간 지상파에서 방영된 주요 청년 관련 휴먼다큐멘터리 목록

방송사	프로그램명	에피소드 제목	핵심주제	방영일자
EBS1	다큐 프라임	행복한 주거 1부 '그곳에 청년이 산다'	청년 주거	2017.06.01
	다큐 시선	청년 일용직 잡부	청년 일용직 잡부	2017.03.17
		왜 뽑냐고 물으신다면?	사회적 트렌드 '인형뽑기'로 바라본 청년	2017.04.14
		5월 선거, 청춘이 뭐다	청년 정치	2017.05.12
		나는 청년 기술자입니다	3명의 기술자 청년	2017.08.25
		결혼 파업	결혼하지 못하는 사회	2017.10.06
		나는 인턴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인턴 근무	2017.11.03
		퇴사하고 오겠습니다	청년 퇴사	2018.01.12
		청춘, 전통에 빠지다	전통을 계승하는 청년	2018.01.19
		짜니까 청춘이다	짬돌이 청년	2018.01.26
		청년어부가	청년 어부	2018.02.02
	미스터리 휴먼다큐	달려라! 청춘을 실은 푸드트럭	푸드트럭 청년 2명	2016.09.20
		4부작, 대박청춘	취업 외의 길을 선택한 청년	2016.11.22. ~12.13
	EBS 스페셜	취업전쟁: 청춘생존보고서	청년 취업	2016.09.18
	프레임인- 셀프다큐, 청춘	10부작, 1부 '미생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청년 취업	2015.10.26
	인터뷰 대한민국, 1998년 IMF 生	1부 '나는 IMF생입니다'	98년생 청춘을 통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	2018.01.20
	EBS특별기획 7부작 인터뷰 다큐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1부 '101번째 이력서'	청년 취업	2017.10.22
MBC	MBC 다큐 스페셜	행복 찾아 3만리	해외 취업	2015.11.02
	MBC 스페셜	중식이의 최저 임금 싸우팅	최저 임금	2018.03.15
KBS1	KBS 다큐1	청춘 1부 '내일을 찾아서'	청년 취업과 주거 문제	2015.10.01
		청춘 2부 '갈림길 앞에서'	이탈리아, 독일 소재 해외 청년을 통해 바라본 국내 청년문제 해결방안	2015.10.02
	KBS 스페셜	지.옥.고 청년의 방	청년 주거	2016.04.16
	명견만리	1부 '40만 공시족, 정답을 묻다'	공무원 청년	2016.11.18
		2부 '저성장 시대, 부채세대 생존법'	저성장시대 청년	2017.02.24
	다큐 공감	아들 힘내!	해외 청년 창업	2015.05.23
		우리 같이 살아요	공동 주거	2016.09.11

방송사	프로그램명	에피소드 제목	핵심주제	방영일자
		청년농부 김민구의 농촌희망일기	청년 귀농	2017.07.15
		세상이 학교다 -스무살 하영이의 특별한 도전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년	2017.11.11
		샐러리맨 청년, 스타트업 CEO되다	청년 창업	2018.01.27
SBS	SBS 스페셜	헬조선과 게임의 법칙 -개천에서 용이 날까요	헬조선과 흡수저론	2016.05.08
		은밀하게 과감하게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	청년 퇴사	2016.09.12
비고	먼저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주요 다큐콘텐츠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이라는 과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체들에 관한 재현이 지상파 다큐영역에서 주기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예전보다 확장된 관심을 받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서 기존의 대학인이나 대도시 거주 전문직 청년층을 주로 다루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적 위상을 점유하는 청년들에 관한 조명이 비교적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당대의 주요 쟁점인 취업과 실업 문제 외에, 청년층이 직면하는 주거, 창업, 최저임금, 부채, 탈한국, 결혼, 감정노동과 세대 차이 등의 보다 분화된 주제들이 꾸준히 탐색되고 있다. 그런 한편 다수의 다큐 작업들 속에서, 청년이라는 대상과 관련하여 어떤 양식성과 포맷, 실험성, 그리고 관점의 변화를 도모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다 차별화된 기획과 실행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는 복수의 관련 작업들을 주로 선별했으며,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시기에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일정한 관심을 불러온 휴먼다큐멘터리 계열의 텍스트들을 추가적으로 진단하였다.²⁾

분석 결과, 수집한 TV 휴먼다큐멘터리들은 기성세대가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비중을 두거나 전문가들의 분석틀을 빌려서 청년층의 세태를 다루기보다는, 주로 청년들이 살아가는 과정이나 특히 이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분투하는 과정과 노력에 관한 세밀한 포착을 통해서 일정한 이해와 더불어 공적인 반향을 구현하려는 특징을 보여준다. 첨언하면 이런 유형의 텍스트들은 공통적으로 청년 다수가 직면하는 상황이나 환경적인 특성을 어떤 통합적인 틀이나 주로 위로부터 투사되는 거시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담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섭외된 청년들의 개별적인 사연들이나 다양한 삶의 행적을 상세하게 풀어가면서, 이들이 옥조이는 현실 속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며 나름의 노력과 복안을 추구하는 주요 단면들을 밀착된 방식으로 보여주려는 측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요컨대 구직이

2) 청년 관련 다큐멘터리의 조사와 정리된 방식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포털 사이트에 '청년'과 '다큐'와 같은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면서 보도 자료가 존재하는 휴먼다큐멘터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청년〉 연작의 주요 키워드라 볼 수 있는 '공장 노동자', '최저임금', '퇴사', '청년 정치'가 포함된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검색하였으며, 발굴된 작품들을 유튜브나 관련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찾아 시청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아르바이트, 주거 문제, 자기관리, (감정)노동, 대안의 추구 등과 관련된 미시적인 층위에 주력하는 스토리텔링의 흐름 속에서, 거시적인 사회상과 사회적인 압박과 관련된 제도적인 요인들을 일부 배경이나 참고의 자료 정도로 녹여 내거나 한정시키는 특정한 선택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한편, 주제의 측면에서는 ‘저성장시대’와 같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닥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취업을 둘러싸고 술한 고민과 동요, 그리고 불안을 보이는 청년들의 자구책이나 대응방식을 고려한 ‘청년실업’, ‘청년취업’, ‘청년일자리’와 같은 소재가 주를 이루고도 있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존재하는 무한경쟁과 자기관리의 연장으로서 청년들의 퇴사를 둘러싼 고민과 기업문화에 관한 적응의 문제와 조직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이질감이나 고립감 등의 사안과 같은 당대 청년들이 접하고 있는 상존하는 세대적인 차이와 갈등, 그리고 위계화된 압박 등에 관한 환기작용 또한 주기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청년 취업과 관련하여 일종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창업이나, 해외에서 직장을 구하는 ‘탈조선’현상을 포함하여 대안적인 유형의 삶을 살아가려는 청년의 모습들은 비교적 짧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EBS <다큐 시선>이나 KBS <다큐 공감> 등의 텍스트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³⁾ 또한 청년 취업 외에 한국 사회 내에서 심각함을 더해가는 주거 공간의 문제를 다룬 다큐가 여러 편 제작되었으며, 수도권 일대의 높은 임대료와 이로 인한 고시원, 반지하방, 옥탑방과 같은 청년층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일정한 현실감을 소구하면서 다룬 작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⁴⁾

앞서 언급한 지난 몇 년 동안 지상파에서 방영된 일련의 TV 휴먼다큐멘터리들의 경우, 청년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다양한 층위와 위치 속에 놓인 청년들의 체험과 애환을 수

3) 지상파를 포함한 대부분의 방송사가 시청률을 기대할 수 있는 드라마, 오락 장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기준 다큐멘터리를 1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곳은 EBS와 KBS1 정도이다(김유열, 2014, 1쪽 참고).

4) 이들 다큐작업에서의 재현적인 특징은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스토리텔링 속에 녹아든 차별적인 논조 속에서 일정하게 부각되기도 한다. SBS <은밀하게 과감하게: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 EBS 다큐 시선 <퇴사하고 오겠습니다>와 같이 청년들의 애환에 집중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공감과 환기효과를 주로 느슨하게 제기하는 작품들이 있는 반면, EBS 다큐 프라임 <행복한 주거: 그곳에 청년이 산다>, MBC 스페셜 <중식의 최저임금 사우팅>처럼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집중력 있게 보여주고 비교하면서, 통계자료와 전문가의 첨언 등을 통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일부 진전된 논지를 직간접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청년층이 당면하는 문제에 관하여 비교적 적극적인 논조를 드러내는 작업들도 소수 존재한다. 또한 사회적 트렌드로 청년을 이해해 보는 다큐시선 <왜 뽑냐고 물으신다면?>과 <청년> 연작 4부에서나 EBS 다큐 시선1 <5월 선거, 청춘이 된다>에서처럼, 청년이 직접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설파하는 다큐들도 일각에서 접할 수 있다.

럼하면서, 이들의 현황과 반영하려는 노력들은 그 자체로 일정한 의의와 기여를 발휘한다고 판단된다. 그런 한편,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하며, 특히 비슷한 포맷이나 구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열은’ 문제의식을 발하는 일군의 청년 관련 다큐멘터리들은 이들이 겪거나 감내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주로 단편적인 초점을 맞추면서, ‘소재주의’에 일정 부분 경도되는 관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앞서 논의한 사례들과 비교할 때, 그리고 과거와 비교할 때 표면적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청년 관련 방송다큐멘터리들의 부상 속에서 이 연구의 핵심 분석대상인 〈청년〉 연작의 존재감이나 의의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텍스트가 총 4부작의 상대적으로 긴 호흡과 복합적인 구성을 기반으로 청년 문제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다루려는 기획과 문제의식이 투영된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EBS의 〈청년〉 연작은 열악해진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토로하는 진솔한 목소리들을 큰 폭으로 수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관해 진지하게 사회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를 담은 장기적인 기획이라고 논할 수 있다. 특히 ‘시대’와 ‘탐구’라는 제목 속에 강조된 표현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이 텍스트는 2017년의 가장 주요한 사회적인 쟁점으로 과감하게 ‘청년’ 문제를 지목한다. 〈청년〉 연작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다양한 사례와 일화를 통해서 청년층이 대면하는 불안정한 현실 속의 난점과 이들의 활동상을 비교적 생생하게 포착하면서, 유의미한 작업을 제공했다는 기획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텍스트의 구성적인 함의나 차별적인 성취와 더불어 이 작품이 구현하는 관점의 특징과 명암을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는 먼저 이 기획이 전개하는 서사의 전반적인 특징과 그 속에서 발현되는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구현된 텍스트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읽어내고자’ 한다. 긴 연작의 구성을 빌리면서 청년의 삶에 관한 확장된 관심을 엮어내는 공공적인 텍스트의 재현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탐구는, 복합적인 다큐텍스트의 내적인 의미구조에 관한 자세한 조명과 함께, 대중성이 상당한 지상파 다큐를 통해서 구현되는 보다 확장된 의미작용과 기획의 성취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지적-비판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청년〉 연작의 텍스트 분석: 청년을 둘러싼 재현이 발현하는 성취와 한계들

1) 연작이 드러내는 서사전개의 특징과 핵심 주제의 구현: 위기에 처한 ‘평범한 삶’

다큐프라임 〈청년〉 연작은 낙담하는 청년, 고심하는 청년, 고군분투하는 청년, 대안을 조심스럽게 찾는 청년, 길을 잃어버린 청년, 그리고 또래의 이야기와 사연을 탐문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들의 입장과 상황에 주목하고 일정한 배려와 이해를 추구하면서 풀어내는 기획이다. 이를 통해서 이 연작은 청년들이 직접 겪어낸 체험과 고민, 그리고 부조리함 등을 ‘근접해서’ 포착하고자 하면서도, 온건하며 강하지 않은 톤의 내레이션으로 이 시대 청년층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함축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문제적인 상황과 여전한 집합적인 해결책의 부재나 난망함에 관하여 수용자들이 곱씹을 수 있는 일정한 연상과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성을 발산하는 스토리텔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사전개의 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연작의 재현작용이 발현하는 명과 암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서사구성의 측면에 대해 논해보자면, 〈청년〉 연작의 각 파트는 모두 ‘주요서사’와 ‘부수서사’로 구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요서사가 한 파트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주제를 풀어내며, 부수서사는 필요에 따라 주요서사 중간에 삽입되면서 해당 파트가 담아내는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보완하거나 보다 입체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제의 측면에서는 “평범하고 싶다”라는 부제이자 제작진이 선정한 핵심적인 강조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텍스트는 험난한 사회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거머쥐기 위해서 일련의 노력을 경주하는 청년들의 행적과 활동상을 다양한 사례들을 축적하면서 풀어낸다. 〈청년〉 연작의 주요서사와 부수서사가 결합하면서 구현해내는 핵심적인 주제의식은 대다수의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대면하는 동시에 기성의 수용자 층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확산되고 복합적인 위기와 징후의 조명이라고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부의 주요서사와 부수서사, 그리고 핵심주제는 〈표 2〉로 정리했다.

각 부의 핵심적인 주제는 주요서사가 주로 포착하는 특정한 인물이 대면하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과 그에 대응하는 상황적인 특성과 면모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영상 속의 청년들은 ‘저녁이 있는 삶’과 같은 대중적인 소구력을 발휘한 바 있는 정치적인 슬로건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사회적 평균치의, 즉 ‘보통’의 삶을 희구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와 동시에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의 서사들의 흐름과 강조점을 복기하면, 각 텍스트가 ‘평범한 삶’의 위기라는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은 일정한 차별성을 발휘한

표 2. 〈청년〉 연작의 각 파트별 주요서사, 부수서사, 핵심주제

1부	제목	보통의 날들, 청년 괜찮은가요?	방영일	2017.02.27
	주요서사	메탄을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진희의 사고 이후 달라진 일상생활과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중심으로 서사를 구현하며, 그가 확실한 '실명판정'을 받는 과정과 피해자들이 연대하는 모습을 일부 그려냄으로써,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번민의 상황을 포착한다.		
	부수서사	안산에 위치한 공장에서 노동하는 생산직 중 20대에서 30대 초반 대 연령의 청년들과 인터뷰한 장면이 배치된다.		
	핵심주제	불의의 사고와 열악한 생산직 노동환경으로 인해 평범하고 건강한 삶이 갑자기 박탈된 청년들을 주로 포착해내면서, 동시에 현재 청년층 일부가 노출된 '위험의 외주화'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 환경의 문제점과 그늘진 측면을 조명하면서 수용자의 관심을 이끈다.		
2부	제목	최저임생, 최저임금위원회 101일간의 기록	방영일	2017.02.28
	주요서사	2016년에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유일한 청년 참가자인 김민수가 위원회 회의에 여러 차례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쌓고 동시에 좌절하는 모습을 포함하면서,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구체적인 제도적 과정을 기성의 전문가가 아닌 청년의 시선으로 가시화한다.		
	부수서사	'최저시급'을 받는 다양한 청년주체들이 느끼는 삶의 애환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중 상당수가 연루된 불안정한(precarius) 노동조건과 청년들이 회구하는 '평범한 삶' 사이의 괴리와 장벽을 다룬다.		
	핵심주제	'노동'과 '생존'이 밀접하게 결부되는 제도적 과정의 단면을 청년의 관점과 경험으로 조명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일부 환기시킨다. 특히 개별 청년주체들의 사적인 경험만이 아닌, 공적 제도와 기성세대와 청년과의 조우를 통해서 어떤 공공적인 정책의 문제나 이와 관련된 청년층의 소외가 존재하는지를 상징적으로 표출해낸다.		
3부	제목	평범하고 싶다, 이루고 싶은 꿈	방영일	2017.03.06
	주요서사1	대기업 퇴사자인 최준호가 퇴사에서부터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친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전형적인 '세대 갈등'의 문제를 암시하며, 그가 대기업 내에서 겪은 갈등적인 상황과 퇴사 결정의 이유, 그리고 회사를 떠나면서 견지하게 된 삶에 관한 변화된 태도를 그려낸다.		
	주요서사2	부당하게 해고된 신영경이 사측과의 법적 다툼에서 이기고, 복직하기까지의 우여곡절과 행적을 비교적 길게 담아낸다.		
	부수서사1	인터뷰를 통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청년들의 사례와 사안을 조명하면서, 청년층이 물질적 보상보다는 안정성 등을 이유로 공적 영역에서 특히 공무원 직과 관련된 일자리를 추구하게 되는 단면과 사유를 풀어낸다.		
	부수서사2	제작진이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논하는 청년들의 모임을 주최하고, 이들과 집단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낸다.		
	핵심주제	특정한 노동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혹은 타율적으로 이탈하거나 또는 안정적인 직장에 소속되고자 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성의 수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이들의 실질적인 고민이나 견해를 조명함으로써, 청년층이 대면하는 불안정하고 고착된 현실과 이들이 회구하는 '평범한 삶'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다.		
4부	제목	할 수 있을까? 젊은 희망을 만나다	방영일	2017.03.07
	주요서사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재치 있고 창의적인 비판과 풍자를 해왔던 개그맨이자 작가인 유병재가 타이페이와 스페인에서 구직자, 정치인, 사회운동가 등의 다양한 청년주체들과 마주하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분투하는 청년들의 삶과 관련되는 고민과 대안 찾기를 모색한다.		
	부수서사	김광진(더불어민주당 19대 전 국회의원), 조성주(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이준석(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동학(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등장하며, 주로 가벼운 유형의 대담과 난상 토론을 통해 '청년 정치인 되기'의 어려움을 풀어내면서 한국 사회 내 청년 정치의 현주소와 난점에 관해 일련의 대화와 소회를 풀어간다.		
	핵심주제	청년들이 대면하는 현실적인 쟁점이나 제도과정 내로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청년 정치인의 활동상을 '옛보게' 하면서, 정치 참여 주체의 가능성과 실행의 어려움을 조명한다.		

비고	<p>전반적인 스토리텔링과 서사의 흐름은, 기존의 관련 다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청년들을 등장시키면서, 또래의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공유하는 사안들을 예시적으로 그려내고 사안의 함의를 축적하는 접근법을 보여준다. 특히 기성세대의 수용자들에게 청년층의 삶에 대한 진전된 앎을 소구하는 환기효과를 비교적 담담하면서도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풀어낸다. 한편 재현의 특성으로, 청년들의 삶과 소망을 옥조이는 거시적인 구조의 문제점이나 제도와 정책의 측면을 전문가적인 관점이나 보다 선이 굵은 문제의식으로 풀어내는 작업은 (의도적으로) 크게 도모되지 않는다.</p> <p>이 연작은 노동, 구직, 주거, 일과 노동의 질(quality), 사회로의 진출과정 속의 장애, 그리고 대안적인 삶의 행로 추구 등과 같은 당대 청년들에게 긴밀한 동시에 고뇌와 갈등이 강하게 부각되는 핵심 문제들을 강한 톤으로 쟁점화하고 심층적으로 서사화하기보다는, 문제적인 사안들이 야기한 상황과 심각성을 환기시키면서, 수용자들에게 곱씹을 메시지를 주로 제언하는 유형의 스토리텔링을 구현한다.</p>
----	------------------------------------------------------------------------------------------------------------------------------------------------------------------------------------------------------------------------------------------------------------------------------------------------------------------------------------------------------------------------------------------------------------------------------------------------------------------------------------------------------------------------------------------------------------------------

다고 논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텍스트가 추구하는 주요한 특징들 중 하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청년에서부터 명문대를 졸업한 청년을 망라한 다양한 청년상을 포착함으로써, 한국 사회 내 청년층 대다수가 ‘평범함의 위기’와 이로 인한 내부의 동요와 변민을 공유한다는 단면을 강조하는 측면이다. 1부의 서사구조는 ‘수도권 대학생’ 청년에 대한 통념이 주로 녹아든 시선과는 달리 한국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상존하는 사회적 편견과 마주하거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육체노동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예컨대 1부는 ‘대학-취업의 이행기’ 행로의 ‘외부’에 위치한 생산직 노동을 하는 청년 당사자들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그들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대면하는 차별과 무관심, 그리고 소외와 애환의 단면들에 관한 진지한 조명과 사회적 환기작용을 도모한다.

또한 ‘평범함의 위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1부의 주요서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다. 관련 예시를 들면, 이 파트 속에 구현된 주요서사는 “아버지,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잠깐 알바하려고 간 거였는데, 운이 나쁘게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자신이 공장에서 겪은 사고를 우발적인 사안으로 해석하며, 크게 변화되고 악화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렵게 적응과 더불어 난점을 대면하는 이진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상의 편집방식과 특히 내레이션은 이진희의 사례를,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을 비롯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존재, 갑자기 늘어난 핸드폰 물량에 대한 수요, 노동과정 속 위험에 관해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환경, 발생한 재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 하청업체와 대기업의 위계적 관계 속에서 소외되는 청년 노동 등의 복합적으로 연계된 요인들의 결과로 서술해낸다. 나아가서 이 같은 재현 속에서, 이진희 등의 사례와 같은 비극적인 과정이 한 불우한 개인에게 닥친 우연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제도와 사회적인 차별,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의 문제일 수 있으며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⁵⁾

1부의 주요서사는 부수서사와 결합되면서, 현 상황에 변화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청년층 중에 또 다른 ‘이진희’가 생겨날 수 있으며, 이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도 측면의 변화와 공적 관심의 결집이 필요함을 ‘열게나마’ 제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청년담론들 속에서 종종 주변화되거나 가려지는 공장 노동자 청년들에 주목하는 1부는 수도권 대학생이나 해당 지역의 취업준비생에 국한하여 논의되어온 상당수 청년 관련 언론의 담론들이 보이는 관성을 탈각하려는 관점을 일정하게 드러낸다. 요컨대 1부는 청년 관련 기성 다큐들이나 저널리즘의 관행적인 스트레이트성 보도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단편적인 재현의 방식을 보완하고, 불안정한 위상을 공유하는 노동하는 청년들을 소환하면서 그들이 겪는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발현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차별화된 의의를 발휘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2부의 부수서사는 부조리한 노동환경과 관행 속에서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다소 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평범함의 위기’를 주로 직설적인 톤으로 재현한다. 부연하자면, 2부의 청년들은 스펙 쌓기와 학점 관리에 전념하는 대학생에 치우쳐 재현되는 청년상의 ‘이면’에 가려진 청년주체들에 주목하며, 이른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유지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주인공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내일을 꿈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오늘’만을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김동훈과 “당장 다음 달, 내일 입에 풀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삶의 윤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최저임금이…”라고 자신이 대면하는 경제적인 생존의 극명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정재영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이 가정 내 핵심소득원인 경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청년〉 연작은 이들의 직설적이면서 고뇌가 깃든 발화와 축적한 경험에 주목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평범함이란 막대한 부를 쌓거나 전문직 드라마마나 나올 법한 번듯한 직종을 가진 이들의 삶이 아닌 소박하더라도 안정적인 삶이라는 측면을 함축적으로 제시해낸다(김홍중, 2016; 정수남·김정

5) 1부에서 손현주의 내레이션이 발휘하는 상당 부분 감성적이면서, 동시에 다소 빠른 의미봉합의 효과를 생성하는 설명방식은 이진희의 삶을 논하는 대목에서 수용자에게 일정한 깨우침과 단서를 주면서 부각된다. 예컨대 이 내레이션의 흐름은 본문에서 논한 이진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과 곤경을 설명하며, 관련 사건의 정보나 주요 단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중간중간에 다음과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한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것처럼 다시 세상을 배우는 진희. 그녀의 봄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견디는 것은 진희가 가장 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고가 터지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버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 같은 재현작업 속에서 일정한 정서적인 효과와 연민이 생성되는 반면에, 이 내레이션이 전하는 사건의 공적인 단면들이나 전개상은 자료화면이나 상세한 관련 정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채 전달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환, 2017).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측면은 청년들이 처한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바라는 평범함의 위상과 의미가 조금씩 상이하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의 청년 세대원들은 각자가 속한 위치와 이행기의 구간에 따라서 대면하는 위기의 종류와 특성이 차별화되기도 한다(강정석, 2015, 2018). 특히 〈청년〉 연작에 재현된 청년들이 소망하는 평범함은 각자가 연루되어 있는 노동 환경에 따라서 상이한 경향성을 보인다. 예컨대 노동자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은 1부의 대다수 청년들은 ‘자재’, ‘소모품’, ‘일회용품’과 같은 비유적인 화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짚어낸다. 또한 1부에 등장한 한 노동자 청년의 발화 속에서 공명되는 “현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치면 너만 손해다. 다치면 너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충고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생산직 청년들이 겪는 고충과 상존하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예시한다. 정리하면 1부에 등장하는 청년들에게 ‘평범함’이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으며, 소모되는 ‘사물’이 아닌 ‘사람’으로 대우받을 기본적인 권리와 자신들이 수행하는 과업에 관한 존중을 소망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재현된다.

한편, 3부의 첫 번째 주요서사의 핵심 인물인 이준호는 대기업에서 예상치 못하게 체험했던 ‘감정적인 낙오’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의 대열에서 ‘탈피’하게 된 청년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학만 졸업하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했던 그는, 막상 취업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또다시 자신을 옥조이는 조직문화의 완강함과 편견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청년의 ‘흔들리는’ 초상을 보여준다. 그에게도 평범함이란 현실 속에 팽배한 과도한 노동과 성과의 축적, 그리고 자기관리의 내면화를 벗어나, 경제적 보상은 줄어도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 선택에 대한 소박한 바람과 대안의 추구로 드러난다. 이와 함께, 3부의 첫 번째 부수서사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청년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공무원을 택한 이유로서 “국가가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니까”, “제가 합격선에 못 미쳐서 남들보다 못해서 떨어진 거니까(원망하지 않아도 된다)”, “나라 망하지 않는 이상 제가 쫓겨날 일은 없잖아요?”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대기업만큼 높은 연봉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시험에 합격하면 상호경쟁적인 조직문화를 크게 상대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나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심각하게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이 갖는 직업적 안정성 등의 차별적인 장점을 강조한다.

3부는 청년들이 좁은 관문을 지나 사기업 취직에 성공한다 해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불안정한 환경과 더불어, 불합리한 기업 내부의 문화에 반발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부당해고당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음을 예시한다. 이를

통해서 〈청년〉 연작은 생존을 중심으로 삶의 행로를 냉철하게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아실현은 사치”(조한혜정 외, 2016, 11쪽)가 되어버린 청년들의 현실을 일련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포착해내며, 이 같은 부박한 현실을 접하는 기성세대의 수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사유와 고민의 공유를 매개해낸다.

특히 3부가 제시하는 주도적인 스토리텔링 속에서, 생존은 경쟁상황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자, 도태와 낙오가 물리적인 탈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의 상처와 상실감까지도 포괄한다는 측면이 부각되기도 한다.⁶⁾ 이 지점에서 〈청년〉 연작은 현실을 아우르며 압축적으로 엮보게 하는 일련의 자기 반영적인 일화(epiphany)들의 배치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평범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청년들을 포착하며, 이들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화된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설득력이 배인 논조로 풀어낸다. 앞서 언급한 이 연작이 제시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재현 속에서, ‘부채세대’로 각인되기도 하는 청년층이 장기적인 경제난 속에서 대면하는 생존의 문제가, 유의미한 사회 안전망의 도움이 크게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화된 가족 단위로 전가되는 한국 사회의 현 상황을 상당한 현실효과를 주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강정석, 2018; 천주희, 2016). 언론인 최은주(2015, 12, 15)가 지적했듯이, “한번 생겨난 격차는 어떤 노력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장벽”들로 공고하게 존재하는 이른바 ‘헬조선’에서, 평범한 삶의 가능성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자신이 속한 가족의 경제적 계층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효과가 이 다큐작업 속에서도 일부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평범함을 실현한다는 것은 원초적 의미의 ‘생존(survival)’을 위해 인간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존엄을 획득하는 과정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홍중(2016)이 정의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또는 생애과정 전체에서 진행되는 경쟁상황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상태”(272쪽)로서의 현재 젊은이들 대다수가 위태롭게 발현하는 ‘생존’(주의)의 추구는, 비록 냉정한 돈과 심화된 분석적인 관점으로부터 지 ‘육화’되지는 못했다고 판단하지만, 〈청년〉 연작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이자, 동시에 맥락적인 효과를 생성하는 존재로 파악된다.

이와 달리, 2부와 4부의 주요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인 김민수와 유병재가 등장

6) 작중에 충분히 다루어지지는 못하지만, 청년들이 갖은 노력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며 경쟁상황에서 살아 남거나 ‘승리’한다고 해서 ‘생존’을 절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여운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성과사회의 압박이 개선되지 않고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생존은 경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상황을 한 번 더 미래로 연장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홍중, 2016, 274쪽).

하는 서사는 다른 파트와 비교할 때, 공적인 활동을 개진하거나 개별 사례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함의를 풀어가면서, 평범함의 위기에 대응하려는 시도를 포함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기획의 방향성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김민수의 서사는 2부의 주요서사와 결합됨으로써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과 공적 정당성을 거론하는 핵심 사례이자, 제도적인 영역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긴요한 서사의 장치로도 활용된다. 한편 개그맨 유병재가 인터뷰어로 해외의 청년 관련 상황을 탐구하는 4부는 ‘청년 문제’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공유되는 문제임을 밝히는 동시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나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그에 준하는 활약상을 보이는 청년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재’하며 집약적인 활동상 또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단면을 대비시켜준다. 그러한 기획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인물들은 도입부의 경우, 김홍중(2016)이 제시한 “타인들과 공동체를 구현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며, 공적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고자 하는”(281쪽) ‘공존주의’적 인물형에 가깝게 ‘설정’된다.⁷⁾ 하단의 4장에서 보다 구체적이면서 긴 지면을 통해 상술하겠지만, 4부가 제공하는 서사 속에는 자신들이 대면하고 있는 사회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대응의 전략이나 참여를 도모하는 청년들의 면모를 선정함으로써, 상존하는 평범함의 위기에 관해 개별 사례를 넘어서는 문제의식을 모색하고, 공적으로 가시적인 실천을 실행하는 청년주체의 역할과 가능성을 일부 조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연작은 구성의 주요 특징으로 1부에서 3부까지는 사회 내 산재한 청년들의 고충과 이들을 압박하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일련의 예시의 사례들이나 고난과 상흔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고, 4부는 변화를 위한 해결책을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모색하며 공유할 제언을 탐색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스토리텔링의 구성과 파트별 차이를 생성하는 재현의 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텍스트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전적으로 프레임하거나 개별 개인사나 미시적인 사안에만 크게 주목하는 기존의 휴먼다큐멘터리와 일부 차별화되는 복안을 시도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서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메탄올 피해 보상’(1부), ‘불합리한 현행의 최저임금’(2부), ‘불합리한 기존 노동 질서’(3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불안한 청년들의 지위’(4부) 등의 청년들이 대면하는 문제적인 갈등 상황은 일련의 관련 사례들로 형상화되며 어떤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동인이나 공적 개입이 희소한 문제적인 측면을 자

7) 이는 기획의 측면에서, 그리고 2부와 4부의 시작 부분에서 그러한 재현의 의도를 감지할 수 있지만, 진행된 전체 에피소드 속에서 그러한 기대가 스러지게 되며, 추구한 문제의식과 설정이 미약한 수준에서 전개된다는 뜻이다.

각하계도 해준다. 특히 2부에서는 회의장을 나와 최저임금을 가위바위보로 정하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농담 섞인 대화 바로 뒤에, 구의역 김 군 사고에 대한 영상이 배치되고 갈등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고조시킴으로써,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생(生)이 걸린 문제’가 제도 내에서 경시되거나 ‘이름 모를 타인의 문제’ 정도로 취급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상징화시켜 보여주면서 2부의 문제의식을 부분적으로 강화해낸다. 이 텍스트는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외환위기 이후 ‘개인화된 가족구조’와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예시할 수 있는 사회적 악조건 속에서 청년들이 비틀거리며 삶을 어렵게 꾸려가는 면모를 압축된 상징성을 동반하면서 예시해내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좀 더 고려해 볼 사안으로, 계급에 따른 사회적 재생산의 측면을 분석한 이상규와 홍석경(2014)에 따르면, 부모가 가지는 사회적 계급과 경제적 능력이 자녀(청소년기)의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 유무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하층 계급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경제적 환경에 놓인 이들의 경우에 비해, 학문의 현장보다 노동의 현장으로 이동해야 할 당위나 압박감을 한층 더 크게 받게 된다. 특히 상당한 비중과 관심을 두면서 생산직 노동자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한 〈청년〉 연작의 1부에서도, 생계를 위해서 자신이 소망했던 꿈을 포기한 한 청년의 사례를 주로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정도로 다룸으로써,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사안을 좀 더 파고들기보다는 타 다큐에서 다루는 식의 흐름 정도로 다루어 내거나 봉합해 낸다.

조금 다르게, 각 파트가 약 55분의 러닝 타임으로 구현된 점을 고려할 때, 총 220분을 할애하면서 청년 문제에 대한 다층적인 스토리텔링이나 힘 있는 방식의 문제제기와 속의의 과정을 심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물리적인 조건이 주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간에 상당한 역량을 보여 온 〈다큐 프라임〉 연작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휴먼다큐의 문법이나 관습성을 일부 혹은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청년 관련 시사적인 쟁점이나 특히 제도적인 요인의 일부를 ‘전술적’으로 녹여내는 방안도 일정하게 가용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⁸⁾

그럼에도 주어진 재현의 공간을 밀도 있게 채워가는 측면에서 이 기획은 기존에 휴먼다큐가 지향하는 쟁점과 갈등을 ‘조율’하거나 축소시키는 방식에서 큰 폭으로 탈피하지는

8) 이 비판점과 관련하여, 필진이 제작진에게 휴먼 다큐의 기획 속에 탐사보도적인 성격이나 사회고발성 앵글을 보다 큰 폭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짜임새와 더불어 종종 유려한 스토리텔링의 역할과 공감을 생성하게도 해주는 작업이지만, 〈청년〉 연작과 같은 대형기획이 투사하는 문제의식이나 하단에서 논하는 이 텍스트가 채용하는 양식성의 심화된 활용과 관련하여, 제작진이 일정하게 차별화되고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방식을 보강할 필요성을 제언하는 입장에서 필진은 이 같은 ‘주문’을 제기해본다.

못한다. 당대 청년층 내부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공고하고 무정한 현실 앞에서 고뇌하고, 견뎌내면서, 어쩔 수 없이 대안 내지 생존의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행로를 복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연작구성의 스토리텔링이, 탐구하는 문제의식의 유기적인 연결성이나 각 파트의 구성이 결합되면서 진전된 인식과 좀 더 단단한 대응의 효과를 매개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나 치우침을 노출한다. 요컨대 〈청년〉 연작은 현재에도 여전히 정체된 현실정치 영역 내 청년 중심의 주요 의제들의 설정과 추진을 둘러싼 쟁점이나 청년 정치인들의 정체된 역할과 관련하여 느슨한 환기효과를 생성하는 수준 이상으로 힘 있게 문제의식과 심화된 설득력을 생성하는 데는 크게 성공적이라 논하기 어렵다. 바꾸어 말하면 이 텍스트는 청년들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번민과 고통의 단면들을 다양한 예시적인 사례들로 풀어내면서 그들이 느끼는 사회적인 장벽의 존재와 막막함을 부각시키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생성하는 ‘근인(根因)’이나 청년들에게 저임금의 구조와 장시간의 노동 환경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러한 측면의 존재와 영향을 예리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통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큐프라임 〈청년〉 연작이 다양한 청년주체들이 대면하는 구직 및 노동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애환을 공론화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취와 반향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들 다수가 희구하는 평범함과 안정성의 성취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의 존재나 이에 따른 청년층의 상이한 궤적에 대해서는 수용자들이 그러한 측면의 면모를 충분히 가늠할 만한 수준으로 분석적인 힘을 구현하지 못하는 단면을 발현하기도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휴먼’ 다큐의 관습성이나 제작진 내부의 장르 운용에 대한 인식과 초점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논의의 결을 바꾸어, 〈청년〉 연작과 더욱 정련된 ‘여성주의적’ 시각의 문제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여전히 선명하게 조명되고 차별적으로 탐구되지 못한 젠더 중심의 문제의식

“남자인 게 스펙”(류형림, 2015, 6쪽)이라는 말은 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겪게 되는, 결코 개별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집합적인 차별상에 관한 문제의식을 다소 단적으로 혹은 극화시켜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사회구조적으로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젠더불평등’의 문제는 “내가 학벌이 안 좋아서 안 돼.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안 돼. 내가 여자라서 안 돼”-〈청년〉 연작 3부에 등장하는 공무원 합격생 김지애가 발화한 표현 속에서 짧지만 명확하게 공명된다.

다시 말해, 〈청년〉 연작은 웬만한 노력과 운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거머쥐기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청년인 동시에, 여성인 주체들이 ‘나름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남성성심의 가치와 제도적 효과가 큰 노동시장에서 젠더적인 차이나 인식이 작동하는 장벽 앞에 가로막히는 현실을 일부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사기업은 여성의 입장에서 계속 다니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한 작중에 등장하는 권다정의 우려짓든 목소리에서, 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사회가 정의내린 정상생애주기과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중고를 겪어야만 하는 현실을 일부 드러낸다.

상당수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구조적인 차별의 피해”(오은진·김소연, 2016, 144쪽)를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더해, 결혼과 출산, 육아 등 가정 내 돌봄 책임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계발이나 경력의 유지를 위해 전력투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제이자, 특히 많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심화시킴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사기업보다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기업 혹은 공공영역의 직무를 선호하도록 크게 압박하는 사회적인 궤적을 형성하기도 한다.⁹⁾ 또한 이는 연금이나 유아 휴직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거나 혹은 성별 차이에 따른 불공정함이나 임금 격차 등이 공적인 형태로 비교적 강하게 인지되고 제도로도 뒷받침되는 공무직을 선호하는 작금의 현상과도 일정하게 연결되는 지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청년〉 연작과 교차하는 동시에 이 기획이 충분히 현실지향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지 못한 감정노동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로 인한 직간접적인 차별이나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주체들의 존재는 최근의 대중문화 공간에서도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밤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숨도 못 잔 채 기업의 면접장으로 향해야 할 만큼 여유 없는 현실을 버텼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희화되고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교육지책으로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드라마 〈라이프〉의 여주인공 한정오는 괜히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다. 작업장과 기업의 공간을 가로지르며 은밀하게 습속화된 성차별이나 스테레오타입화와 성적 대상화에서 기인하는 일련의 갈등이나 직간접적인 홀대와 편견 등의 문제를 인지하면서, 구직 주체인 청년 여성들은 노량진으로 혹은

9) 청년층이 노동시장 초기 경력 진입 층으로서 겪는 구직과 경력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고도, 청년층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인한 취업이 중단되는 비중이 34세 이하 청년층을 기준으로 61.6%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며, 주지하다시피 ‘경력 단절’은 상당수 여성 노동자들에게 무시 못 할 위협이자 불안의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체험하는 주요 문제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제기된 바 있다: ‘과중한 업무(장시간 근로)’,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회사분위기 및 조직문화가 가장 많아’(오은진·김소연, 2016, 142쪽), 청년 층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구조적인 성차별적인 피해가 더 큰 상황으로 판단된다.

고시원으로 발걸음을 돌리게도 된다.

한편, 청년담론 속의 주체들은 젠더를 비롯해 학력, 지역, 계급 등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지닌 개별적 존재들의 집합체이나, 그동안의 청년담론에서의 청년은 주로 '수도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집중되어 구성되어 왔다. 이는 '다층성'과 '이질성'을 지닌 결코 적지 않은 청년들이 주류의 청년 관련 언론담론 등에서 배제되거나 비가시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배은경, 2015).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상황에서도, '청년'이면서 '여성'인 주체들이 공유하는 문제적인 경험이나 이들 스스로가 지적하는 소외나 주변화의 단면들은 주로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어 결집하지 못한 채, 청년담론의 주류로부터 상대적으로 집약적인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류형림, 2015; 추주희, 2017).

〈청년〉연작의 3부에서 잠시 드러난 젠더 측면과 연계된 문제의식은, 유기적인 재현의 효과와 쟁점을 구현하지 못한 채 흩어져버리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측면을 포착할 수 있다. 관련 예시를 들면, 청년 여성이라면 상당히 공감할 만한 체험을 녹여낸 대사들이 3부에 등장하는 김지애와 권다정의 입을 빌려 '몇 마디' 짧게 발화되지만, 이런 유형의 재현방식은 다수 청년들의 애환과 좌절을 조명하는 일련의 담론 속에서 여성이라는 사회적 존재의 입지를 예리하게 짚어내고 젠더의 해석틀과 결합되어 감지 가능한, 더욱 선명한 효과를 주는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한다. 즉 〈청년〉연작이 앞서 거론한 여성 상당수가 집합적으로 겪게 되는 경험을, 그와 같은 체험이 적은 수용자가 젠더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현실의 압박과 효과를 심각하고 주시할 문제로서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서사적인 방점과 재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해당 사안을 공유하는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에 집약적이고 정련된 수준의 관심이나 독자적인 프레임으로까지는 투영해내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젠더적 상상과 문제의식의 차별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1부에서의 청년/여성들의 모습을 포착한 부분 또한 다르지 않다. 먼저 수용자의 입장에서 이 연작이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청년담론들 속에서 육체노동이나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인물들을 일종의 '악한 고리'로 주목하면서 소환하는 유형의 기획과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년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구직과 취업 이후에 체험하게 되는 차별적인 난점이나 특히 이들이 대면하게 되거나 노출되는 젠더 차이에 의한 훈육의 단면이나, 취업 이후에 성차별적인 질서나 통념 속에서 노출되는 차별이나 억압적인 단면에 관한 시선은 이 다류의 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흐름과 고양된 '깨달음'을 심도 있게 고무하지 못한다.¹⁰⁾

주지하다시피 '청년' 범주 내에서도 사회적 계급이나 직종 등에 따라 문제적인 상황

이나 개인 층위의 궤적이 달라지듯이 ‘청년’이자 ‘여성’인 주체들 내부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1부와 3부에 등장하는 청년 여성들이 겪는 젠더 차이에 따른 문제점의 유발이나 성차별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차별적 관행, 그리고 마찰과 갈등의 단면들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주목할 필요성이 개선되기도 한다. 이 같은 재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년〉 연작이 공장 노동자이자 여성인 청년들의 경우, 동일한 노동력에 대한 교환가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심각하게 구성되는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우리 사회 내의 고착된 현실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고 집중력 있게 탐색의 시선을 제기하지 못한 재현의 효과를 생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해 보인다.

부연하자면, 남성 동료와의 임금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쉽사리 가시화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저임금에 대한 젠더라는 문제들을 경유한 성별격차와 관련된 문제의식은 비정규직 청년 여성 집단 내에서 적지 않게 공유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지표나 혹은 매체에서 기획한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적인 단면의 단초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다. 그와 같은 실존하는 단면을 고려할 때,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임금이 성별과 직종 또는 업종에 따라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이나, 조직 내에서 젠더와 차별 요인이 접합되는 과정에 대한 조명 작업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은 〈청년〉 연작이 성찰적으로 숙고하지 못한 한계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이다.¹¹⁾

기실 젠더와 이 요인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인 차이에 관한 입장의 구현이나 진단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다큐 연작 속에서, 젠더적인 관점이나 문제의식의 단면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 다큐가 주목하는 다양한 청년상의 재현 속에서, 청년 주체는 ‘보통의 남성’이거나 젠더적인 차이가 뭉뚱그려진 방식으로 적지 않게 표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상적인 생애주기의 모델이 “근대적 젠더관계에 기반

10) 예컨대 여성들의 위상이, 노동이나 임금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정규직 일자리에서는 경력 단절 현상으로 인한 상당한 우려와 불안을 생성하며, 비정규직 일자리와 저임금 감정 노동의 부문에서는 여성 인력의 큰 쏠림 추세가 성별 임금 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 등은 이 연작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또한 특정한 방식의 여성으로서의 행태나 품위를 강조하는 남성중심의 조직 문화에 관한 관찰도, 소수의 여성 출연자 관련 에피소드 속에서 일부 암시되지만, 어떤 사안과 문제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11) “여성이 덜 받는 임금 100만 원 중 60만 원, ‘단지 여자라서’”(한겨레, 2017, 1, 9) 기사 참조. “일하는 여성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70%에 달하고, 정규직 남성의 임금이 100이라면 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66.1,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36.3에 불과한 편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류형림, 2015, 5쪽)

한 전형적인 남성의 그것”(배은경, 2015, 17쪽)이라는 측면을 부분적이라도 곱씹으면서, 주로 생애주기과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또는 그러한 인식이 사회와 조직 내부에서 여전히 완강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겪는 젠더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적인 대우와 통념 등의 문제가 공공매체가 생산하는 휴먼다큐와 같은 일정한 ‘전향적인’ 성격을 구현하는 텍스트 속에서도 크게 가시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 연작은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생존주의를 다양한 방편으로 추구하는 청년들의 다양하고 미시적인 행태를 포착하는 데 역량과 관심을 큰 폭으로 집중한 〈청년〉 연작이 충분히 대응해내지 못한 문제점이자, 젠더적인 측면에 주력하는 문제의식이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간과되었을 가능성이 나, 진중한 탐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었음을 일정하게 반박하게 해주는 ‘징후’로도 판단되는 것이다.

4. 〈청년〉 연작이 활용하는 주요 양식성들의 비판적 진단

1) 빌 니콜스의 다큐멘터리 양식 설정과 분석을 위한 변용

이 절에서는 당사자 중심주의와 ‘휴먼다큐멘터리’적 특성과 공명하는 〈청년〉 연작이 활용한 주요한 양식성을 중심으로, 이 다큐 텍스트에서 체화되는 제작진이 구사한 관점과 문제의식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분석을 전개하면서 먼저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이론가인 니콜스(Nichols, 2001/2005)가 주창한 개념들인 ‘관찰자적 양식’, ‘설명적 양식’, ‘시적 양식’을 ‘관조적 양식’, ‘서술적 양식’, ‘은유적 양식’으로 변용시켜 〈청년〉 연작에 적용시켰으며, 이와 함께 그가 주창한 ‘수행적 양식’의 경우에도, 영화다큐가 아닌 텔레비전 다큐의 위상과 특성에 연동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고려하면서 진단과 독해를 도모하였다.¹²⁾

12) 변화하는 시대상이나 다큐의 공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구현된 빌 니콜스의 다큐멘터리 양식분류는, 1991년에 출간된 그의 저작 〈재현된 현실(Representing Reality)〉 속에서 설명적(expository) 양식, 관찰적(observation) 양식, 상호작용적(interaction) 양식, 그리고 성찰적(reflexive) 양식의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설명된 바 있다. 이후 1994년 〈흔들리는 경계(Blurred Boundaries)〉에서 그는 수행적(performative)적 양식과 2001년 〈다큐멘터리 입문(Introduction to Documentary)〉에서 시적(poetic) 양식을 추가한다. 연구진은 논픽션 계열의 방송 콘텐츠이면서 휴먼다큐의 성격과 역할을 발휘하는 〈청년〉 연작의 특징과 이 텍스트가 채용하는 주도적인 다큐의 양식적인 구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본문에서 해제한 4가지 양식이 비교적 적합하며 유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음을 밝힌다. 니콜스의 다큐 양식론이 변화해온 주요 측면과 맥락성에 관해서는 최영송(2016)과 홍유리(2017)의 작업을 참고할 것.

주지하다시피 니콜스(2001/2005)가 분류하고 주창한 다큐의 양식성과 채용되는 관점의 세분화는 매우 많은 다큐 관련 연구들 속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니콜스가 고안한 양식성은 주로 영화 다큐멘터리 작업이나 관련 글쓰기를 통해서 그가 시도한 정의 내리기와, 변화하는 사례들의 함의를 매개로한 개념화의 작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니콜스가 제공한 양식들은 스스로 밝혔듯 “느슨한 구조틀”(168쪽)로 기능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간명한 명칭과는 달리, 이들 개념들 속에는 다큐 전통의 지역적인 특성이나 사회역사적인 차이들, 장르적인 구성의 차별성, 다큐운동의 영향이나 윤리적인 성찰, 그리고 채용하는 양식을 둘러싼 실험성을 통한 현실 개입 등의 다기한 맥락적인 변화와 변곡점을 포함하는 매우 복합적인 의미와 용례들이 포진되기도 한다.

즉 한국이라는 ‘로컬’ 속 축적된 고유한 관습성을 발산하는 EBS의 TV 휴먼다큐멘터리인 〈청년〉 연작에 니콜스가 주창한 양식성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식’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개념적 변용을 일부 시도하게 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다큐멘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화법과 기법들이나 특히 피사체와 제작의 주체들 간의 관계성이나 권위의 문제, 분석적인 거리(analytic distance), 그리고 상호작용의 정도를—혹은 이 같은 측면을 둘러싼 쟁점을—고려하는 측면에서도, 필진은 일정한 분석적인 변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먼저 연구진의 분석에서 기존의 관찰자적 양식은 관조적 양식으로 변용하고자 한다. 니콜스는 다큐멘터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터뷰를 ‘관찰자적 양식’에서는 연출된 재연과 함께 경계하거나 제어해야 할 대상으로 논한 바 있다. 특히 ‘관찰자적 양식’의 주요한 기법으로 피사체와의 일정한 (분석적인) 거리를 노정하며, 특정한 방향으로의 의미를 촉진할 수 있는 관행적인 인터뷰의 부재(不在)(Nichols, 2001/2005, 183쪽)를 핵심적 요인으로 들기도 했지만, 〈청년〉 연작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현장을 유형 인터뷰’는 어떤 배가된 설명이나 심화된 진실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호적인, 그리고 연민과 관용이 어우러진 시선을 느슨하게 투사하는 유형의 ‘관찰’이나 지켜보기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런 동시에 〈청년〉 연작이 활용하는 지배적인 관찰방식의 경우, “[재현되는 대상들의] 생생한 경험을 기동성 있게 관찰”(Nichols, 2001/2005, 183쪽)하며, “출연자의 여과 없는 삶을 그대로 노출시킨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출연자의 깊은 내면의 모습”(이현숙, 2012, 235쪽)을 보여주는 수준의 치열하고 끈질긴 실행에까지는 상당 부분 이르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정련된 ‘객관성’을 강조하며 “설득을 강조하지 않는”(Nichols, 2001/2005, 191쪽) 기존의 관찰자적 양식과는 달리, 휴먼다큐멘터리로서 〈청년〉 연작 제

작진은 다루는 사안에 관한 심화된 파고들기 식의 집중적이면서 관련 쟁점을 복합적으로 곱씹게 해주는 접근방식을 채용하기보다는, 대상과 수용자 간의 일정한 공감이나 상징적인 교섭을 시사해주는 유형의 매개자 내지 ‘안내자’ 정도의 역할을 적지 않게 견지하고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니콜스가 주창한 기존의 ‘관찰자적 양식’을 변용하여 ‘관조적 양식’으로 대체하였다.

앞서 서사와 재현의 특성에서도 일부 논했지만, 〈청년〉 연작은 거의 모든 파트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비개입적’이며 ‘자연스러운’ 시선을 경유하면서, 섭외된 청년들을 재현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예를 들면, 주로 평범한 구도의 촬영 기법과 고정 샷들은 청년들의 삶과 그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청년들의 애환이나 동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혹은 상당한 현실감을 부각시키면서 재현하고자 하는 접근방식과 더불어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진작해낸다. 특히 등장인물들이 영위하는 일상이나 그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발하는 특정 장소(성)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제작자가 타인의 행위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Nichols, 2001/2005, 185쪽)이나 그러한 ‘태도’가 관찰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포착되는 피사체 중심의 서사 전개를 위한 인터뷰, 그중에서도 이 연작 텍스트 속에서 제작진의 질문을 생략하고 응답자들의 말만 ‘선택적’으로 남기는 ‘현장음 유형(actuality only)’(강승엽, 2001, 89쪽)에 주력하는 인터뷰 기법은 이 같은 방향성을 더욱 강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비가시적”인 동시에 “현장(on-the-scene)”에 존재”하는 제작자는 “간접적인 개입”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Nichols, 2001/2005, 185쪽). 즉 관찰되는 대상에 대한 제작진의 윤리적 의무와 성찰성의 문제가 부과되며, 작품 속에서 그러한 측면에 대한 숙고된 대응이나 크고 작은 차별성을 구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청년〉 연작의 재현작용과 형상화 속에서 주로 청년들의 삶이나 행적을 담담한 방식으로 ‘지켜보는’ 식의 조심스러운 동시에 크게 동적이거나 개입적이지는 않은 관심과 시선이 상당히 배어난다.

한편 니콜스가 제시한 ‘설명적 양식’은 ‘서술적 양식’으로 변용하여 적용하고자 한다.¹³⁾ 니콜스의 개념화 작업에서 설명적 양식은 다분히 ‘효율적’으로 생산되는 다큐의 문제의식과 관점을 설파하고 녹여내는 장치로 제시된 바 있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효율성이나 이해도의 추구는 종종 교훈적이거나 제작진이 추구하는 논점을 상대적으로 단순명료한

13) 〈청년〉 연작의 ‘서술적 양식’은 니콜스(2001/2005)가 말하는 수사학적 틀로서의 ‘설명적 양식’에 전반적으로 조응하는데, 내레이션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정보 제공의 논리”(178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니콜스가 강조한 것처럼 “논쟁적”(176쪽)인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하기에 ‘설명적 양식’과 일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방식의 전달이나 특히 의도된 부연설명에 집중하게 만드는 한계를 생성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고전적인 의미의 설명적 양식은 이제 다큐의 영역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진은 동시에 심화된 예술성이나 미학성을 전폭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관(습)성을 보이는 텔레비전 다큐 문법의 경우, 여전히 탐색되는 주제나 등장인물들의 행태나 삶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설명이나 상황적인 정보와 얹어 추구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을 느꼈다. 예컨대 이 연작 속 청년들은 상당히 많은 갈래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나 입지를 혹은 기성의 제도와 마주치고 상처받은 핵심적인 경험을- 비록 일각에서는 단편적인 구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서술하고 회고한다. 특히 적지 않은 좌절감이나 상처와 아쉬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소망 등을 체화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들은 제작진의 편집 과정이나 보이스 오버를 통해서 일정한 논리적인 흐름과 존재감, 그리고 부드러운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발산한다. 앞선 절의 분석과정에서 부각된 바 있는 주요서사와 부수서사의 결합이 예시해주듯이, 제작진에 의해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구성되고, 편집된 청년들의 발화와 증언은 그 자체가 그들 삶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제작진에 의해 ‘선택적’으로 부각된 특정한 삶의 단면을 나타낸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서 논의한 관조적 양식과 더불어 청년들의 목소리가 뜻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나, 혹은 부각되는 의미작용과 흐름을 ‘조절’하는 관습적인 장치라고 할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 주요 대목에서 적극적으로- 혹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소 과하게- 활용되고도 있다. 또한 내레이션이 영상 이미지를 일부 서술해내기도 하지만, 구현되는 시각적인 이미지 역시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삶과 상당히 조직적으로 ‘연동’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헤아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종류의 특정한 메시지와 의미효과를 은연중에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서술적’ 양식은 동시에 〈청년〉 연작 속에 포착된 이들의 삶에 일정한 해설을 보강하거나 이들이 발화하는 목소리를 결집시켜가며 더욱 증폭된 문제의식을 구성한다기보다는, 표면상으로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일정한 ‘객관적인 대상물’이거나 ‘예시의 장치’ 정도로 주로 기능한다.

한편, 니콜스가 주창한 ‘시적 양식’의 경우는 ‘은유적 양식’으로 변용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시적 양식은 시각적 에세이의 구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며, 스토리텔링의 흐름 속에서 은은한 배경효과나 수용자들이 일정한 여유와 사유의 공간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이 변용한 은유적 양식은 〈청년〉 연작 내 주요하거나 두드러진 양식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메탄을 피해자가 등장하며 확

연하게 측은지심과 떨치기 어려운 상흔을 수용자들에게 인지시키는 1부를 중심으로 상황과 환경을 비교적 길게 풀어내면서 부드럽고 감성적인 시적 기법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이 에피소드는 수용자들에게 일정한 곱씹음과 성찰의 순간을 제공하는 유형의 상징적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활용된다. 이 같은 용례는 선정되는 인물이나 상황을 둘러싼 특정한 “분위기가 나, 정서적 감흥”(Nichols, 2001/2005, 172쪽)을 유발하고자 하는 휴먼다큐멘터리적인 특성과 여러모로 연동하면서, 수용자들의 몰입이나 관심과 정서적 차원의 숨고르기를 진작시키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판단된다.¹⁴⁾

마지막으로, ‘수행적 양식’은 〈청년〉 연작 속에서 재현된 청년들의 위상과 이면을 들추어내며, 다수의 청년들의 삶을 접하게 하는 기획과 양식성의 ‘고안’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과, 특히 등장인물의 재현과정과 관련된 쟁점이나 숙고가 요구되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짚어내는 데 필요한 주요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니콜스의 관점이나 관련 후속 작업들 속에서, 수행적 양식은 다큐 작업 속 대상들의 재현과정이나 채용하는 관점과 목적 등에 관한 심화된 자성과 윤리적인 차원의 ‘자기반영성(self-reflexivity)’이나 ‘진한 곱씹음’의 추구를 판단하는 데 긴요한 개념적 구성물이다. 또한 이 개념은 다큐가 시도하는 재현과 관찰의 과정 속에 등장하는 인물(군)의 위상과 함의나 다루어지는 방식을 ‘어떻게’ 고안하며, 재고하거나 재구성할 것인지의 탐문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매우 복합적이면서 다루기 까다로운 개념이다(Gade & Jerslev, 2005).

부연하면 이 개념은 장치적인 성격이나 특정한 기술적이고 묘사적인 기능을 크게 넘어서, 보다 철학적이며 특히 피사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포착하는 카메라로 상징되는 권위나 기획자가 선택하는 특정한 입장과 복안까지도 (재)고려하면서, 구현되는 작업의 전반을 성찰하게 고무하거나 혹은 압박하는 역할을 발휘한다. 니콜스가 강조한 바 있지만, 수행적 양식은 그러한 이유로 기존의 관찰적인 혹은 관조적인 양식과 때로는 ‘충돌’하는 역할을 발휘하기도 하며, 특히 다큐가 구현하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효과를 곱씹고 부단히 검증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나 그런 기획의 의도성과 접근성 자체에 관해 질문하는 심화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¹⁵⁾ 또한 이와 같은 모색의 과정에서 기존의 다큐 관습을 비틀며 복합적 양식들

14) ‘은유적 양식’은 종종 ‘시적 양식’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영상 이미지 속에서 “시공간의 비약적 전환”(Nichols, 2001/2005, 172쪽)이 이뤄지거나 “실제 세상은 파편화되고, 영화적 형식을 이용해 미학적으로 재구성”(오원환·허철, 2010, 112쪽)하는 방식의 전위적인 특징들은 〈청년〉 연작 속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험적 미학을 통해 다양한 갈래의 해석을 풀어내는 ‘시적 양식’의 심화된 가능성이 다각도로 활용되면서 일정한 역량을 발휘하기보다는, 이 연작 속에 등장하는 은유적 장면들은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이나 효과로 판단할 때, 비교적 명쾌하지만 한편으로는 관성적인 상징의 차원이나 개인을 둘러싼 상황적인 특징을 주로 ‘묘사’하는 데 집중된다.

을 일부 혼합하거나, 관성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실험을 시도하는 등의 지향하는 문제의식을 예리하게 체화할 수 있는 다원적이며 실험적인 방식들이 고안되기도 한다.

연구진은 이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청년〉 연작이 제기한 등장하는 인물과 이들이 처한 상황을 둘러싼 재현의 제 양상과 선택된 관점의 투사 방식과 한계에 관하여 더욱 상세하면서도 ‘논쟁적인’ 해독을 도모하고자 한다. 〈청년〉 연작은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나 정책 입안자 등을 크게 활용하지 않고, 섭외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서사와 주제의식을 상당히 일관되게 제공하고 있지만, 제작진이라는 ‘외부 기획자’에 의한 편집과 재현작용은 필수적으로 ‘대상화’나 특정 관점으로의 ‘집중과 선택’과 같은 쟁점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양된 감정을 매개로 수용자와 다큐멘터리 속 인물들 간의 공감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사안의 파악과 앎을 이끌어내려는 휴먼다큐멘터리는, 수용자들의 주제에 관한 ‘용이한’ 접근이나 감성의 구현을 고려한 대중적인 서사 전략을 취하기 쉽다. 이는 앞서 개괄한 양식성의 효과와 더불어 청년들의 삶을 ‘이해 가능한 차원’으로 치환하는—혹은 그런 추구 속에서 종종 이미 확립된 휴먼다큐의 관행을 큰 차별점이 없이 답습하게 하는—측면도 포함하기 때문에, 〈청년〉 연작의 매우 주요한 특징이자 제작진의 복안이라 할 청년 중심의 스토리텔링의 구성이 성취하는 효과 외에, 놓치고 있거나 미진하게 구현된 측면을 검증할 필요성도 마땅히 개진된다.

첨언하자면 카메라가 주시하는 개별 청년들의 고뇌와 삶에 대한 태도를 주기적으로 포착하는 이 연작의 전반적인 구성 속에서, 사회상이나 청년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 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녹아들거나 혹은 유의미한 차원의 존재감과 영향을 주는 지에 관한 탐문의 노력들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앞서 주목한 2부와 4부에서는 스스로 긴요하게 여기는 삶의 요인을 찾고자 하며, 일정하게 자율적인 방식으로 개별 사안을 넘어서는 공적인 이슈로의 참여와 같은 주제들이 수행적 양식성의 단초로 판단될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재현하는 주제와 대상에 관한 진중하고 재귀적인 고민(self-reflexive concerns)을 풀어내면서, 그와 관련된 쟁점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면서, 일정한 숙고와 개입적인 역할이 해당 텍스트 내에서 변주되면서 등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다큐가 통상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제시하는 ‘지시적인’ 용법이나 ‘진실 포착’과 ‘진정성’의 효과에 관하여, 일정한 반성적인 사유나 곱씹음을 투사하려는 노력이 감지되는 것이다.

다음 절부터는, 앞서 논한 다큐 양식성의 작용과 함의를 고려하면서, 〈청년〉 연작이

15) 니콜스가 주창한 수행적 양식은 특히 이 양식과 종종 비교되거나 중첩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작용적’ 양식이나 ‘성찰적’ 양식 등과 맞물리면서, 일정한 혼선이나 정의의 지나친 방만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채용하는 주요 다큐양식들의 특징과 명암에 관한 조밀한 해독을 통해서 어떤 특징과 한계를 짚어낼 수 있는지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2) 청년들의 삶을 ‘지켜보는’ 다큐작업의 의의와 한계

방송 다큐멘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긴 재현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제작된 〈청년〉 연작은 ‘청년’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이야기의 주체인 청년들의 시각과 목소리를 인터뷰 형식과 대화, 내레이션을 통해서 주목하면서, 이 다큐기획을 현실반영과 ‘증언의 장(場)’(Nichols, 2001/2005)으로 구현하면서 수용자들을 ‘초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 같은 재현의 방식은 ‘성공한 인물’이나 ‘특이한 인물’이 아닌 ‘보통 인물’에 속하는 청년들의 사적인 삶을 비교적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인간 가치”(이중수, 2002, 39쪽) 프레임작용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영위하는 삶을 수용자집단과 기성세대에게 비교적 ‘부드럽게’ 매개하려는 한국의 방송 휴먼다큐멘터리 장르의 관행과 특징을 상당 부분 드러낸다(이경화, 2009; 이중수, 2002; 이현숙, 2012). 이 같은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정의 이입이나 감성적인 이해는 시청자들에게 ‘청년 문제’에 대한 일정한 인식의 확장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주제를 수용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먼저 〈청년〉 연작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정적인 카메라는 비가시적인 존재로 치환되면서 ‘관조적 양식’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유리창 너머로 대상을 포착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상처받은 모습이나 현실의 벽 앞에서 느끼는 진한 고뇌와 기대의 부서짐 등과 같은 감정의 단면, 그리고 이들의 주변적인 사회적 위치를 담담하게 포착해낸다. 이때 등장인물들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으며, 일종의 (섭외된) “사회적 배우”로서 “일상에서의 자기 제시방식”(Nichols, 2001/2005)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청년〉 연작은 기차, 버스 등에서 주인공과 함께 창문 밖 모습을 종종 비춰주는데, 2부에서는 최저임금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이러한 시퀀스가 삽입되면서 중요한 회의의 장소로 이동하는 김민수의 기대감이나 그가 느끼는 불확실함에 대한 심리적 상황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재현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청년〉 연작에서 종종 사용되는 슬로우 모션 기법은 이러한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나 작중에서 표출하는 감정에 대한 은근한 곱씹음과 감성적인 효과를 진작하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텍스트는 매우 많은 인터뷰를 제공하면서, 당사자 청년들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그 특성상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장면들이 빈번하게 이어진다. 대부분의 인터뷰 장면들은 각종 자료 화면들과 함께 구성되는 경향이 짙지만, 〈청년〉 연작

의 경우, 호소에 가까운 청년들의 반응이나 자신들이 체감한 절절한 사안과 관련된 술회가 끝날 때까지 바스트 솟으로 그들의 얼굴을 담아내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의 애환과 고민, 그리고 쉽지 않은 가운데 길 찾기의 노력을 과정적으로 부각시키는 방안을 추구한다. 특히 3부에 등장하는 청년들의 집단 인터뷰나 4부에서 이례적으로 시도된 청년 정치인들 간의 난상 토론은 기존에 주로 짧고 예시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인터뷰의 반복이나 방법론적 한계를 ‘타파’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독되기도 한다. 침언하면 단순한 목소리의 취합이 아닌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좀 더 발현되는 대화를 통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도적인 측면과 일정하게 연계시켜 구성하려는 ‘시도’를 일각에서 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청년〉 연작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다큐 텍스트의 주요 구성요소이자 서사적인 교직으로 삼으면서, 한국 사회의 청년 문제를 생생하게 읽어내려는 고민과 기획의 주안점을 녹여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재현적인 특징을 통해서 추출되는 청년 문제의 단면들은 종종 서사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면서 일정한 주제의식의 강조와 현존을 변주해내지만, ‘온전한’ 메시지 전달 이상의 기능을 크게, 그리고 심화시켜 수행하지는 못하는 단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3부와 4부의 경우, 현실의 문제점을 시사해주는 발언이나 자신들의 먹먹한 체험을 술회하는 과정은 양적으로 비교적 풍부한 편이지만, 상황과 골절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열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구성 속에서 청년들의 발화와 그 속에 담긴 자신들의 현실에 관한 입장이 보다 치밀한 유형의 맥락(성)을 구현하거나 즉각적인 인지 이상의 집약적인 효과를 구성하지 못하고 파편화되면서, 이 시대 청년들이 영위하는 복잡다기한 삶의 방식을 상대적으로 단순히 ‘힘겨운 삶’과 ‘심대한 노력으로 버티기’ 정도로 아우르는 효과를 생성하기도 한다.¹⁶⁾

또한 〈청년〉 연작 속에서 마치 현실을 ‘예증’하는 듯한 방식으로 배치되는 적지 않은 대화와 담화들은, ‘성장 패러다임’에만 주력하며 청년 문제를 야기하는 한국 사회 내 지배적인 인식의 한계나 경쟁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의 ‘이면’이나 문제점을 긴 호흡으로 진단해내는 선까지는 힘 있게 이어지지 못한다. 예컨대 이 기획 속에서 다루는 주제의 긴급함이나 복잡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부분적으로라도 시사다큐멘터리가 채용하는

16) 이 연작 속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프레임 바깥에 위치한 기성세대에게 항변하고 일침을 놓거나 냉소나 분노와 같은 반응을 표출하는 청년층의 모습은 크게 포착되지 못한다. 제도의 벽과 마주치고 쓴맛을 보고 자신의 행로를 조정하게 된 힘겨운 사례들에서도, 그러한 조우의 과정적인 지난함이나 디테일은 세밀하게 부각되거나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조명되고 있지 못한 편이다. 이 대목에서 일정한 대안성의 추구로, ‘청년유니온’ 등의 구체적으로 사회참여적인 활동을 보이는 이들에게서, ‘한국이 싫어서’ 탈한국을 스스로 도모하는 젊음이나, 고단한 감정노동을 영위하는 청년층과 여성 주체들이 보이는 현실에 대한 응축된 체험을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의 모색도 제작진은 일부 고려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전문가 집단의 제언을 ‘전술적’으로 수렴한 관점의 활용이나 정련화의 노력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관련된 제도적인 실행이나 구조화된 효과와의 연관성을 긴밀하게 탐색하면서 심화된 인식을 매개할 수 있는 메시지 전략을 상당 부분 제어한 결과, 청년 문제와 연관된 거시적인 관점이 배경막 정도의 흐릿한 효과를 생성하게 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의 의제 설정이나 심화된 담론작용에까지는 크게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필진의 의견으로는 이 기획을 가로지르며 제작진이 녹여낸 혹은 일관되게 표출한 ‘선한 의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들릴 권리”(엄기호, 2010)를 주로 상징적인 수준에서 배려하고 강조하는 선에서 문제의식의 투사가 두드러진다. 추론하건대, 이러한 한계는 불특정 다수를 섭외하는 방식을 통해 만나게 된 청년들 간의 짧은 대화들을 편집하고, 이를 메시지 중심으로 배치하는 텔레비전 다큐 텍스트의 관행이 야기한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결과로도 해독된다.

또한 양적으로 많지만 다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접합하기 위한 장치로서, 특정한 정보와 앎을 전달하기 위한 ‘서술적 양식’ 역시 〈청년〉 연작 전반에 걸쳐 관찰된다. 그중에서도 2부는 서술적 양식의 특성인 관련 사안의 논리적이고 설명적인 작업을 제공하면서, 앞서 언급했던 구조적 원인의 존재를 짧게나마 구현해낸다. 밀착된 방식으로의 인물과 감성, 사연과 상황 등에 적지 않게 주목하는 휴먼다큐의 관습성이 강하게 관찰되는 다른 파트와 비교할 때, 제작진이 이 특정 파트에서 논지 강화를 위해 곳곳에 배치한 정보들은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선명한 방식으로 주제의식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인지도가 큰 아이돌이자 여배우인 ‘혜리’가 찍은 최저시급 관련 광고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관련 자료화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들과 최저임금 월급 병기, 모든 업종 동일임금 주장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 내 각종 요구와 논란들, 영세자영업자들이 가게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요인별 비율 통계 등의 자료들이 관련 사회상을 예시하는 자료 혹은 곱씹을 지표로 부각된다. 이런 일련의 정보들은 자료화면, 애니메이션, 각종 통계 그래픽 등의 삽입으로 보완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상한선을 기록해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속이었던 김영한의 비망록을 후반부에 삽입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논쟁적으로 진단하는 시사다큐멘터리적인 시선이 이 파트 속에서 짧게 표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청년〉 연작 내에서 관찰되는 서술적 양식은 주로 관조적 양식을 보완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활용된다. 청년문제와 관련된 개별 사안을 넘어서는 제도와 정책 차원의 요인들을 탐색하는 내용은 1부와 3부에서 짧게 엿보이긴 하지만, 보다 숙고되고 특히 ‘논쟁

적인' 방식으로 제기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다면적인 관련 요인들의 존재를 인지시켜 주기보다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점과 제도적인 난점의 존재를 반복적으로 서술하거나 변주하는 수준에 머문다. 그러한 결과, 이 기획이 표면적으로 강조하는 청년 주체 중심의, 예컨대 '자기-서사'가 주가 되는 스토리텔링이 확연하게 제공되고는 있지만, 2부가 다루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청년 문제처럼, 제도적 맥락과 분리할 수 없는 청년 문제의 구체적인 형상화나 특히 공적인 쟁점의 재현이 상대적으로 약한 단면을 드러낸다.¹⁷⁾ 2부는 〈청년〉 연작이 포착한 청년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 위에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레이션으로 덧붙임으로써 이들에게 주목하려는 기획의 의도를 변주해가며 실행하지만, 그러한 관심 또한 영상 속에 제공된 이미지를 예시해주면서(Nichols, 2001/2005, 178쪽) 현실을 '제한적'으로 환기하는 차원에 주로 집중되는 것이다.

한편 1부에서는 갈대밭, 메탄을 피해 사건을 알리는 전단지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장면 등과 공장의 문이 닫히며 빛이 사라지는 장면, 청년 노동자들의 과거 한때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 거울에 청년 노동자들의 모습이 비치고 깨지는 시퀀스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은유적 양식의 효과를 상당 부분 엿볼 수 있다. 기존의 청년을 재현하는 방식의 협소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1부의 경우, 제조업 종사 청년들이 인터뷰를 위해 공장으로 들어올 때 문이 닫히며 빛이 사라지는 장면을 도입부로 삽입함으로써, 메탄을 피해자로 실명하게 된 인물이 처한 상황과 맞물리는 구성이 비교적 인상적이면서 상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이렇듯 1부는 일정한 공감과 연민을 촉발하는 은유적 방식을 통해서 청년 노동자들과 메탄을 피해자들의 교집합을 형성하면서, 언제나 보통 이하로 전락하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을 염두에 두는 특정한 서사의 배치와 접근법을 제공한다.

그런 동시에 은유적 양식은 갑자기 피해자가 된 청년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 추구되는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양시키기보다는 등장하는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막막함을 주로 포착하면서 연민과 안타까움을 견인하는 차원에 적지 않게 머문다. 이 지점에서 특히 〈청년〉 연작에 등장한 인물이 나오는 또 다른 텍스트인 MBC 〈시사매거진 2580〉 “공포의 공장” 편과도 재현의 차이점과 방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공포의 공장”이 청년 노동의

17) 필진의 시각에서 보면, ‘탈존·독존·공존·생존’ 등의 굴곡진 삶의 양태를 크게 발현하는 ‘생존주의 세대’(김홍중, 2016)로 파악되기도 하는 이 시대 다수 청년층에 대한 외부 주체들의 접근과 재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려는 시도 또한 일정하게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그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 평면적인 수준의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한 서사와 인지의 전략을 제작진이 선택한 측면은 다소 단일한 문제의식의 결과로도 판단된다.

실태를 들추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나 (청년) 노동자 보호책의 부재 등을 적나라하게 들추는 것과는 달리, 〈청년〉 연작은 청년 노동자들이 겪는 피해와 체념,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등의 상황을 재현하는 데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¹⁸⁾ 하지만 그들의 체념 이전에 존재했을 분노와 절망 또는 동요 등의 감정과 자금의 상황을 만들어냈을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책임의 부재’ 등과 같은 복합적 요인들을 연계된 흐름으로 치밀하게 조명하지 못하면서, 휴먼다큐멘터리적인 관성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귀결되고 만다.

또 다른 관련 사례를 들자면, 〈청년〉 연작 1부 내에서 부각되는 은유적 양식은 시각을 잃은 이진희를 묘사할 때 두드러진다. 희미한 갈대는 그녀의 흔들리는 삶을, 바람에 스치는 갈대의 소리와 갈대를 짚는 손은 이제 청각과 촉각만으로 외부 세계를 경험해야 하는 그녀의 변화된 상황과 맞물린다. 평소 즐겨 찾았던 야구장에서는 활기차게 응원하는 다른 관람객들의 모습과 달리, 가만히 앉아 눈을 깜빡이는 그녀를 포착한 장면이 슬로모션으로 길게 이어진다. 이 대목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장애의 대상이 된 주인공에 관한 열지 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생성된다. 그런 반면에 ‘가족애를 통한 위기 극복’이라는 전형적인 동시에 효과가 일정 부분 관성적인 휴먼다큐의 모티브가 재연되기도 한다. 또한 이 연작은 발생한 사건의 공적인 측면이나 혹은 해결하려는 대응과 극복의 과정을 관련 인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행로와 난점을 세밀하게 짚어가면서 조명해내기보다는, 병원에서 그녀의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가족들의 안쓰러운 노력과 막막함을 보여준다. 이진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장면도 개별화된 상흔이 아닌 공통의 상처와 대응을 엿보게 해주는 기능을 일부 예시해 주지만, 전체 에피소드 속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구성적인 측면에서 〈청년〉 연작과 비교할 때, 이 텍스트 속에서 메탄올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진단과 평가, 관련 업체 및 정부 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 관련 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 마련의 촉구를 강조하는 논점이 스토리텔링 속에서 비교적 명료하게 구현된다. 특히 이 기획은 피해자들이 생겨난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해,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상황과 여파에 관해 제시한 후, 원인 파악을 위해서 전문의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인터뷰를 이어서 배치하면서 메탄올의 위험성을 조명하기도 한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공장 내부의 스마트폰 부품 제조 공정의 과정적인 재현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복기해내기도 한다. 현장 관리 감독자 및 파견업체 등은 메탄올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보호 장구의 착용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발생 원인이나 책임과 관리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이 프로그램은 서사의 흐름 속에서 전모를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청년〉 연작 속에서 수용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진작시키는 주요 장치로 기능하는 1부의 이진희 중심의 서사는, 본문에서 논했듯이, “공포의 공장”이 제기하는 유형의 개인들의 삶에 심대한 충격을 가한 사건사의 면모를 상당히 결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의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 이후의 결과와 대응을 주로 간략하게 내레이션을 통해서 전하는 구성을 보인다. 휴먼 다큐라는 장르의 문법이나 관습적인 지향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시사적인 쟁점이나 사안을 파고들고자 하는 진단의 힘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모와 이진희의 모습을 벽 하나를 두고 갈라진 듯 묘사하는 장면은, 서로 간의 매꾸기 어려운 간극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은유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또한 그녀를 그리는 주된 배경이 ‘어둠’을 상기시키는 ‘병원’이라는 점은 이진희의 피해자로서의 위상을 주로 형상화하는 효과에 일조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등장인물이 겪을 상실감과 상처의 크기를 부분적으로 가늠하게 해주지만, 그런 비애감은 결국 무력함에 가까운 잔영을 남기게도 된다. 결국 언급한 장면들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피해 자체를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조명하기보다는, 피해로 인한 미시적 차원의 상흔과 결과 정도를 감성적으로 표상해냄으로써, 등장인물이 맞닥뜨리게 된 개별적인 난관과 희생이 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청년〉 연작 1부의 경우, 메탄을 피해자의 사례를 적지 않게 안타까움과 배려를 동반하며 ‘관조’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감정의 분화와 결합 과정을 거쳤을 고통과 체념이라는 감정구조와 이를 배태해낸 관련 요인들을 둘러싼 개입적인 효과나 제도 층위의 사안들에는 크게 주목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다큐작업 속에서 청년과 같은 타자에 대한 보다 숙고된 관점은, 텍스트 내부에서 등장인물로 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거나 얼마의 시간과 이미지들의 구현이 할애되었는지의 문제를 넘어서, 피사체로 상징되는 주체들의 목소리와 입장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안으로 수렴할 것인지에 관한 주의 깊은 성찰과 동시에 통념에 관한 문제제기나 일정한 해체를 포함하기도 한다. ‘관조적 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연작의 양식성이 발휘하는 효과는 선이 굵은 문제의식이나 응시 이상의 관찰과 탐구의 기능을 부각시키면서 이 측면에 연동하는 효과와 반향이 활성화되는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기보다는, 연성화된 효과를 주기적으로 생성하면서 관성적이면서 제한적인 성취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¹⁹⁾ 이 연작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관조적인 카메라의 시선은 이제껏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상황에 주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이들이 처한 불합리한 환경을 둘러싼 크고 작은 맥락성의 문제와 쟁점을 치밀하게 탐구해내기보다는,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온건하게 때로는 연민과 동정이 깃든 시선으로 청년들의 삶을 관찰하고 있다는 인상을 품게 되는 것이다.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취업 이후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나 “성실함은 아버지 세대의 자산입니다” 등의 내레이션은 냉소적인 패러디이자 고통스러운 외침인 ‘노오오오오력’으로 희화화된 청년들의 자화상이 적지 않은 현실효과를 발산하는 ‘지금 여기’의 공

19) 이 같은 시도는, 휴먼 다큐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우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제작자가 기대하는 역할을 되풀이하거나 미리 설정된 정체성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만 선택”(민환기·이유빈, 2009, 114쪽)에 그치는 관성을 드러내는 측면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표 3. 〈청년〉 연작 속에서 구현되는 다규 양식성의 유형과 특성들

구분	각 파트에서 구현되는 특징들	
1부	양식성	이 시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의 난점과 고단함에 관해 토로하는 대상들의 발언과 입장을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수렴하되,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관조적 양식성이 연작 전체를 가로지르며 발현되고 있음, 이와 함께 이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심적인 상황을 은유적으로 형상화하거나, 개인 층위의 궤적을 짧게 설명하는 서술적인 양식성이 주기적으로 활용됨. 한편 수용자들에게 휴먼 다규의 관성과 화법을 부분적으로라도 벗어나는 이른바 ‘낯설게 하기’ 등의 확립된 관행과는 차별화되는 실험성이나 미학적인 대안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음.
	내레이션	온화하고 조율된 톤의 보이스오버 내레이션 - 손현주(배우/기성세대/남성) 3인칭 전지적 시점이 주로 투사되면서, 담담하고 묘사적인 방식과 접근과 공감에 용이한 톤이 구사되고 있음.
	인터뷰 기법	현장음 유형 병원과 공장을 배경으로 청년들의 인터뷰가 진행되며, 이들의 전체 모습이 담기는 풀 샷과 얼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클로즈업 샷을 적절히 조합하면서, ‘평범하고 싶지만 그러기 어려운 청년층의 상황을 비교적 차분한 톤과 구성으로 소개함. 이와 함께, 사회의 편견이나 제도의 허술함 등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곤경을 드러내는 내용의 인터뷰와 서사작업을 통해서 이들 주체들의 응어리진 감정과 상황을 포착해냄.
	비고	기존의 청년 다규에서 주류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메탄을 피해자와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에 위치시키는 서사의 배치를 통해서, 청년 범주의 확장을 시도하는 기획의 목적성이 발현됨.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수의 경우, 긴 호흡으로 이들의 현실인식이 수렴되거나 포착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함.
2부	양식성	관조적인 동시에 서술적인 양식성이 전개되는 서사 속에서 주로 활용됨: 휴먼다규가 관습적으로 주목하는 인물과 행적에 관한 재현과 함께, 현실참여 등의 쟁점과 관련된 수행적인 양식성의 단초가 일부 드러남.
	내레이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 -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청년/남성), 아르바이트생 청년 5인 청년 운동을 꾸준히 해온 김민수를 서사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내레이션의 주어를 ‘우리’로 설정하고 개개인의 목소리를 집합적으로 엮어내는 구성을 시도함. 한편 그가 참여한 사회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체험과 실망을 부각시키면서, 청년들의 관심사와 목소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며 은연중에 소외되는 단면들의 존재와 ‘완강한’ 현실의 벽을 시사해줌. 또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내레이션을 통해 직접 자신들의 경험과 상황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서술함으로써, 이들이 영위하는 삶의 특징과 결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인터뷰 기법	현장음 유형 김민수의 경우 다른 파트와 달리 인터뷰 중심의 접근이 아닌 최저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상을 추적하는 형태로 재현되며, 이를 통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으로서의 예외적인 활동상과 참여의 경험이 부각되고 있음. 동시에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평범함을 회구하는 이른바 ‘최저 인생’의 예시 격으로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의 인터뷰는 김민수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기능을 발현함. 또한 앞서 김민수의 행적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최저 임금 관련 이슈들과 연계되면서, 청년들의 발화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사회적 함의를 발휘함.
	비고	제도적인 실행 속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당한 난점을 겪은 김민수의 무력감과 소외감을 다소 평면적으로 포착하고 있음. 청년들에게 직결되는 공적인 관심이나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일부 거론하지만, 그러한 완강한 장벽의 문제를 상세하게 풀어내면서 더욱 심화된 문제의식을 발현하지는 못함.

구분	각 파트에서 구현되는 특징들	
3부	양식성	관조적인 양식성이 전체 이야기 구조 속에서 지배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서술적 양식성이 보완적으로 활용됨.
	내레이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 - 강신일(배우/기성세대/남성) 3인칭 시점과 상대적으로 담담한 톤으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입장을 풀어나감. 동시에 갈등적일 수 있는 이 사안의 심도 있는 재현과 이를 효율적으로 녹여내는 양식성은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인터뷰 기법	현장을 유형, 집단 인터뷰 청년층에 관한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이나 관성적인 이해를 간접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전개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담기보다는, 제작진이 강조하는 주로 온건하고 이슈 환기적인 프레임이 적용된 관점을 드러냄. 그와 동시에 퇴사를 경험했거나 고민해본 청년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 인터뷰는 당사자들의 체험이 녹아든 진솔한 대화성의 발휘를 통한 참신한 시도라고 판단하지만, 심화된 논의나 진단을 포함하지는 못함.
	비고	취업 전반에 관한 청년들의 애환과 고민을 다루고 있음. 다수의 청년들이 등장하는 방식은 이들이 대면하는 현실을 예시하는 일련의 문제적인 단면들을 부각시키지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다소 반복적이거나 짧게 제시되고 있음.
4부	양식성	전체 에피소드를 가로지르며 관조적 양식성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이와 함께 서술적 인 동시에 수행적 양식성을 고려한 기획의 노력이 일부 드러남.
	내레이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 - 유병재(개그맨 · 작가/청년/남성)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혼재하며, 내레이션과 화면에 등장하는 인터뷰어가 동일함.
	인터뷰 기법	현장을 유형, 직접 인터뷰와 집단 인터뷰의 조합 인터뷰어가 다른 파트들과 차별적으로 직접 인터뷰와 현장탐방을 진행하지만, 전체 시리즈 속에 투영된 문제의식을 유기적으로 묶어내는 의미작용은 크게 발휘되지 못함. 질문과 문제의식이 주로 정보전달에 그치는 면모를 드러내며, 인터뷰어의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함. 한편 인지도가 있는 청년 정치인들과의 집단 인터뷰 역시 난상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파트와 차별되는 신선한 시도였지만, 일종의 후일담 정도로 논의가 한정되면서 선이 굵은 논점이나 진전된 대화작용은 크게 구현되지 못함.
	비고	청년문제에 대해 소신이 담긴 발언을 꾸준히 해온 유병재를 이 마지막 파트의 핵심 안내자로 설정한 기획은 비교적 참신한 시도로 보이지만, 결국 다루는 쟁점과 사안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수동적인 매개자 정도로 그의 역할이 한정되고 있음. 또한 한국 '외부'의 청년 관련 활동상을 소개하는 내용은 상당히 평면적이며, 숙고된 논점이나 외부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접합시키는 방향성을 구현하는 데는 실패함.

간에서, 문제적으로 보일 여지가 관찰되는 것이다. 결국 제작진이 청년들의 삶을 재현하는데 있어 이제껏 제기되어 왔던 통념이나 연성적인 관점이 주도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재)구성하면서, 보다 심화된 대안성의 시도가 기획과정에서 크게 추구되지 않아 보인다는 추론은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3) 청년들의 삶을 둘러싼 다큐재현의 이면: ‘수행적 양식’을 통한 논쟁적인 해독과 비판

청년연구에 매우 큰 영향과 기여를 준 김홍중(2016)과 최종렬(2018) 등의 감정사회학적인 작업이나, 현재 일각에서 추구하고 있는 분석대상들과 끈끈한 상호작용을 도모한 일련의 ‘참여지향적인’ 분석이 예시하듯이, 이 시대 청년들은 견고한 현실 앞에서 그저 안주하거나 소극적으로 ‘머무르지만’ 않는다. 다수 청년들이 공유하는 집합적인 감정은 삶의 갈피를 잡으려 할 때마다 끊임없이 도전받고, 흔들리며, 복합적인 면모를 구현한다. 상당수의 청년 주체들이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냉철한 계산과 자기관리의 육화를 적극 도모하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이들은 엄혹한 현실에 대해 깊은 냉소와 생존에의 소망 사이에서 번민하고 갈등한다.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라 해도,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와 대항적인 면모를 제기하는 청년들도 명백히 존재한다. 요컨대 이러한 부유하는 청년들의 상황은 ‘잔혹한 낙관주의’의 그들과 ‘파상의 시대’를 고단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의 몸짓과 감정구조를 통해서 표출되기도 한다.

〈청년〉 연작 속에서 비교적 짧게 형상화되며 핵심적인 맥락성이 충분히 제기되지는 못했지만, 1부의 메탄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다큐가 방영된 이후에도 노무사와 함께 산재 소송을 준비하면서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다. 〈청년〉 연작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²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한 기자의 도움을 받아 〈실명의 이유〉라는 작업을 함께 발간하기도 했으며(오마이뉴스, 2018, 3, 10),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고(프레시안, 2017, 12, 5) 유엔에서 연설하는(경향신문, 2017, 6, 11) 등 비교적 다양한 층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도 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1부에서는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편견 섞인 시선에 대해서, 등장한 청년들은 일정한 대응과 좌절감이 복합적으로 배어든 목소리를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의 실현과 인정을 희구하기도 한다. 한 청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이미지를 봤을 때 푸른 캠퍼스에서 뛰고 있는 젊은이들, 이런 게 마치 청년의 대표 이미지인 것처럼, 그런 것도 사실 하나의 소외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라고 말하면서, 고착된 사회적 인식을 파고드는 발언을 제기한다.

20) 〈청년〉 연작에서 핵심 등장인물인 이진희를 다룬 1부에서, 메탄을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모여 각자의 처지와 고통을 논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이 사건의 파급효과와 맥락성이 일부 탐색된다. 그와 동시에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개상이나 관련 동인들의 존재는 좀 더 명확한 방식이나 구체성을 풀어내면서 재현되는 선에는 이르지 못한다. 본문에서 논한 〈공포의 공장〉이나 언론의 이 사안과 관련된 심층보도와 비교할 때에도 그러하다는 이견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낭만적인 ‘청년상’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직설적인 비판은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대학생-청년’ 범주에 대하여 문제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요컨대 〈청년〉 연작 속에 비친 그들의 체념과 꺾이거나 굴절된 희망은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그들에게 닿았고, 그들은 ‘입을 열었다’. 이 연작 속에서 기성세대의 우려 섞인 시각을 부분적으로 ‘대행’하는 카메라의 시선이 그러한 관심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포착해냈으며, 청년들은 자신들이 감지하는 애환과 불의에 관해, 말문을 열면서, 성취가능성이 난망한 희망을 접지 않고 추구하는 면모를 일각에서 발현하기도 한다.

더불어, 2부와 4부의 주요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인 김민수와 유병재는 다른 파트의 인물들과는 달리 공적인 활동을 개진하면서, 연작이 제기하는 평범함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단면을 ‘일정하게’ 발현한다. 예컨대 서사의 기획 측면에서, 이들의 역할과 위상은 휴먼 다큐가 채용하는 감성적인 재현과 등장인물들 속에서 일정한 공적인 주제의식이나 쟁점을 견인할 일종의 ‘균형추’로 배치된 기능을 담당한다고도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청년 대표로서 김민수의 정치적 행보를 밀착하여 포착한 2부의 주요서사는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공적 정당성을 일정한 설득력을 자아내면서 제시한다. 또한 개그맨 유병재가 인터뷰어이자 안내자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중심의 공적 활동상을 탐구하는 4부는 ‘청년 문제’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공유되는 문제임을 밝히는 동시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청년 행동가들이나 정치인들의 행적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그에 준하는 활약상을 보이는 청년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재’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쟁점을 설파해낸다. 그러한 기획을 추구한 측면이나 두 인물의 역할을 설정한 방안에서 김홍중(2016)이 제시한 “타인들과 공동체를 구현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며, 공적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고자 하는”(281쪽) ‘공존주의’적 인물상에 일견 ‘가까워’ 보인다.

부연하자면 청년 연작이 제시하는 재현의 서사 속에서 불안정한 사회구조에 일방적으로 포획되지 않는 청년들의 면모를 부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 내에 확산된 평범함의 위기와 성취의 난점에 대하여 일정한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에 대한 참여지향적인 실천들을 추구하는 청년주체들의 정치적인 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구상의 단면을 접할 수 있다. 다소 단적으로 말해, 〈청년〉 연작이 숙고할 필요가 상당한—동시에 심화되고 유의미한 수준에서 크게 달성하지 못한—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체념이나 순응과 냉소, 그리고 사회적 주변화가 기조가 되는 응축된 ‘감정들의 채집’이나 반영만이 아니라, ‘청년들은 왜 체념할 수밖에 없는가’와 ‘청년들은 그 체념의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가’에 관한 보다 자성적이고 진중한 관점의 구현이자 이를 그려내기 위한 집약적인 모색의 형식성

과 관점을 가로지르는 기획의 힘이라고도 판단된다.

3부의 자발적 퇴사자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한 청년 또한 사회 내 부조리를 대면하게 되면서 주체적 삶을 도모하는 인물이지만 〈청년〉 연작은 이들이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게 된 이유를 짧게 전하면서, 그 결과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이 정상생애과정에서의 탈락하거나 이탈하게 된 이후에 겪어야 했던 고민이나 고통과 길 잃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²¹⁾ 나아가서 비록 대안적 삶의 구상과 수행이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이에 체념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이나 ‘비순응’의 전략 등으로 삶을 모색하는 청년들은 〈청년〉 연작의 프레임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등장하며, 등장하는 다수의 인물들이 대면하게 되는 난관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리게 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둘러싼 재현은 이들이 처한 상황적인 단초와 압박의 징후를 상대적으로 짧게 포착하는 선에서 주로 구현된다.

한편, 2부와 4부의 경우, 청년들의 삶 속의 애환이나 생존법 등의 사안을 담담하게 보여주며 논지를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연작 내 다른 파트가 보이는 ‘전형성’이나 양식적인 완만함과 비교할 때, 현실 속에 작용하는 제도와와의 ‘조우’나 사회참여와 결부되는 인물들의 관점과 행태를 일부 다루려는 차별성을 발현한다. 관련 에피소드 속에서 앞서 논했던 기존의 서사적 흐름을 변화시키며 인물의 활동상과 주제의식을 새롭게 개진하는 수행적 양식의 ‘단초’들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측면이 보다 진중한 고려와 상세한 흐름을 구현하면서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예컨대 2부는 청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물의 활동상을 비교적 집약적으로 주목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소수자로서 청년이 ‘외부’로부터 제도의 장으로 들어가는 ‘예외적인’ 기회와 경험을 그려내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종종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공적인 정책의 공간 속으로 진입하는 주체의 경험과 시선을 매개해낸다. 특히 따로 유명인을 내레이터로 쓰지 않고, 청년활동가인 김민수의 목소리와 최저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 SNS 댓글을 읽는 목소리, 최저 임금에 대한 생각을 담은 메모들 속의 내용을 읽어가는 목소리들이 내레이션을 교차되고 수렴되면서 집합적인 공명을 일각에서 생성하기도 한다. 특히 내레이선의 주어가 ‘우리’라고 설정됨으로써, 흩어진 개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연대감이나 확산된 방향으로 ‘청년’들의 목소리와 외침이 부각되는 것이다.

21) 특히 같은 방송사인 EBS가 제작한 ‘다큐 시선’의 〈퇴사하고 오겠습니다〉의 경우, 독립 잡지를 만들거나 개인 방송을 하는 등 〈청년〉 연작이 일정한 관심과 재현의 공간을 할애하면서 포함하지 않은 방식의 삶의 추구하고 활동을 모색하는 청년들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안적인 행로의 추구하고 관련하여 조금 더 확장되고 변화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도 있다.

4부는 “아프면 환자지, 개××야”와 같은 발언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일정한 공적인 활동상을 추구해온 유병재를 텍스트 내부의 핵심 대화자이자 다루는 쟁점의 설명과 수용을 촉진하는 매개자(intermediary)로 설정하면서, 논점을 풀어간다. 특히 이 부분은 한국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참고의 사례들을 해외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이 깃든 문제의식의 흐름을 접할 수 있다. 〈청년〉 연작의 결론인 이 파트의 경우, “(헬조선에서) 나만 탈출”했다는 그의 말하 속에서 일종의 부채의식이 감지되듯이, 청년이지만 대다수 또래집단의 삶과 비교할 때 상당한 성취와 더불어 특별한 위상을 가진 유병재의 시각으로 스토리텔링이 상당 부분 전개된다.

구체적으로 4부는 유병재와 대만 및 스페인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 지역에서 관찰되는 청년 문제와 대응을 연계시키면서, 청년주체들의 정치참여의 단면과 활성화를 대안으로 거론하는 방안들이 부분적으로 추구되고도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앞선 파트들보다 등장하는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성이 일견 강조되며, 등장인물의 상황을 압축시켜 전하는 발화를 넘어서서 현장성이 연계되는 정보와 앎이 추구되는 동시에 질의와 탐문이 비교적 길게 이어지는 유형의 인터뷰의 양식성이 활용되고 있다. 관련 사례를 들면, ‘현장을 유형’의 인터뷰가 아닌 질문자로서 유병재의 문의와 그에 대한 답변들이 상대적으로 명쾌하게 드러나면서, 한국 외부의 청년을 둘러싼 현실을 바라보는 일정 수준의 관점의 교환이나 채 물렸던 사안에 관한 인식이 일부 생성되는 계기들이 서사의 흐름 속에서 관찰되는 것이다.

특히 대만의 청년활동가와 젊은 여성정치인과의 인터뷰는 청년들의 정치참여라는 지역의 차이를 넘어서 공통의 의제를 중심으로, 단순히 한국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힐난하거나, 계몽하려는 관점을 탈피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조명을 이루어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추구하는 효과가 다소 파편화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대화와 경청의 대상들이 겪어온 현실 인식의 술회와 경험으로 체화되는 증언은 ‘청년 정치인’들이 숙고할 만한 난점과 함께 공적 의제로 확장될 수 있는 시사점을 일각에서 제공하며, 청년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유형의 기획에 접목될 수 있는 관점의 추구를 부분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그럼에도 4부에서 일정한 단초를 드러내는 수행적 양식은, 대화에 참여한 이들이 표출하는 사적인 인식이나 정념들을 보다 유기적인 구현과 각인의 대상으로 고양시켜 제기하는 ‘가능성’이나 ‘촉매제(catalyst)’의 자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청년〉 연작에서 관습적으로 동시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인터뷰의 기능을 일부 변용해내지만, 문제의식의 예리하거나 정련된 수준으로의 구현을 성취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다. 홍유리(2017)는 다규가 채용하는 수행적인 양식성의 핵심 역할과 관련하여, “수행적인 것을 다큐멘터리의 작

동방식으로 놓는다면, 이는 제작 주체가 ‘행동’함으로써 현실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진실을 촉발할 수 있는 토대를 설명”(375쪽)하는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²²⁾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청년〉 연작의 재현상의 짜임새와 특히 체화된 문제의식을 살펴보았을 때, 텍스트 내 수행적 양식의 역할은 TV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용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부를 끌어가는 핵심 화자인 유병재는 서사의 전개를 돕는 매개자의 역할과 함께, 일종의 〈청년〉 연작 제작진의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행태는 주체적인 논조로 대화와 교섭을 주도하고 피상적이지 않은 진전된 삶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여전히 타인의 관점과 발화되는 활동상을 주로 경청하는 소극적인 관찰자이자 상대적으로 단순한 중개자로서의 역할과 면모를 주로 발현한다. 4부가 청년 연작의 ‘피날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추구될 필요성이 있는 이슈와 모색의 방향성을 선연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이 부분은 한국 외부의 사례를 일부 소개하는 유형의 특색과 함께 복안이 별반 느껴지지 못하는 엔딩 정도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유병재’가 아닌 그 어떤 인물이 유병재의 역할을 맡아도 무방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으며, 그와 함께 평소 사회상과 세태에 유쾌한 방식으로 따끔한 일침을 놓는 유병재의 행보를 이미 알고 있는 시청자의 기대에 조응할 수 있는 성격의 담화나 사안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의미작용들이 명확하게 구현되지는 못한다. 이는 기존의 유병재가 가진 이미지와 달리 ‘진지한 유병재’라는 대안적인 활용을 통해서, 〈청년〉 연작에 담긴 문제의식을 변주시켜 부각시킬 수 있는 참신한 시도로도 일정 부분 해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부 전체를 가로지르며 유병재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심지어 내레이션도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구현되고는 있지만, 청년층의 애환과 고뇌를 이해하며 보완책을 찾고자 하는 유병재의 시선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와 깨우침을 발휘하면서 투영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 파트는 그 이전에 제시된 청년 문제들에 관하여 접근법과 구성을 일부 변화시키면

22) 니콜스를 포함한 적지 않은 다큐 이론가들이 다큐멘터리의 수행적 기능을 확립된 관습과 관성을 넘어서려는 기획과 의지의 추구이자, 이를 위한 능동적이고 성찰적인 ‘행동’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에 주목한 바 있다. 즉 수행(performance)은 다큐가 행하는 재현 속에서 정체되거나 기성의 관성을 따르는 것이 아닌, 행동(acting)의 모색과 이 과정 전반에 대한 신실한 고찰, 그리고 자기성찰 등의 복합적인 인식을 동반하는 것이다(Bruzzi, 2000; Renov, 2004 참고). 이 논점과 관련해서, 홍유리(2017) 또한 다큐 생산 속에 발현되는 “수행적 실천은 제작의 주체가[일종의 ‘현재 능동태’] 형의 퍼포먼스를 통해 카메라 앞의 현실과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자, “현실과 다양하게 관계 맺음으로써 충돌과 균열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가시적 현실 너머의 것을 소환하는 역할”에 방점을 두는 작업으로 파악한다(388쪽).

서 일정한 ‘대안’을 탐색하는 마지막 장으로서의 함의를 발휘한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향후 추구될 방향성을 짚어내며 공감의 생성을 시도하는 특징을 일부 지향하고 있음에도,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지향할 단서나 심화된 깨달음을 주는 요소들을 재현의 흐름 속에서 충분히 대면하기는 어렵다. 제작진은 스페인과 대만 현지에서 촬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외에서 채집한 청년 문제의 사례를 결국은 표피적인 수준에서—그리고 여전히 상당한 거리를 둔 관망자의 입장에서—그러내는 데 그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현실과 강하게 동기화할 수 있는 지점들 역시 명확하게 포착해내는 데는 크게 효율적이거나 성공적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둘러싼 가능성이나 활성화와 같은 주제를 염두에 둔 이 파트는, “말하면 들어줄까요?”라는 이 텍스트 말미에 등장하는 유병재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암시하듯이, 소극적인 호소나 조심스러운 탄원 정도로 주제의식을 마무리한다.²³⁾

또한 〈청년〉 연작의 마지막 4부 후반에서, 스페인 사례를 참고의 지점으로, 청년문제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을 외치는 ‘야요플라우타 운동’의 단면을 일부 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를 한국 사회가 집합적으로 숙고할 쟁점으로 설정하기 위한 연계된 논지나, 특히 관련 정지작업을 위한 귀담아 수용할 만한 제언과 실행의 단서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첨언하면, 4부는 해외사례와 한국사례 간의 현격한 차이를 특히 청년 정치인들의 현실 내 위상이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수준의 역할과 활동상을 중심으로 대비시키지만,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거나 간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좁혀질 수 있는지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배가된 설득력과 공명을 구현할 정도로 논점과 제언의 힘을 긴밀하게 발휘하지는 못한다.

특히 이 파트에서 청년 관련 법안이나 정책에 관한 일종의 ‘내부자’로서의 예외적인 경험을 가졌기에 섭외된 것으로 판단되는 청년 정치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대면했던 제도적인 난점에 관하여, 사안을 파고드는 예리한 진단이나 이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만나면서 습득한 절절한 체험이나 문제점을 짚어내면서 자신들의 좌절이나 실패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차원의 세밀하고 어떤 구심점이 생성되는 방향으로의 관찰점이나 비판을 토로하지는 못한다. 이와는 달리 이들은 주로 신변잡기 식의 대화나 기성정치권에 관한 불만과 거리감이 주조를 이루는 후일담 정도를 공유하는 선에서 멈춘다. 결국 이 파트는 청년이 주체가 되는 유형의 정치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담화나 이 과정에서 수용자

23) 〈청년〉 연작 서사 구성의 엔딩에서도, 유병재는 광화문에 서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추구해야 할지를 미약하게 자문하는, 즉 방향성의 추구에서 여전히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환기의 효과와 ‘단서를 찾지 못한(clueless)’ 캐릭터 정도로 논의의 흐름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대만 청년들의 공적인 활동이나 스페인의 야요 플라우타(Yayo flautas) 운동을 다루는 방식 또한 일정한 소재주의적인 활용과 함께 다분히 미묘한 구성을 보여주는 데 그친다.

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형의 통찰성과 함께 곱씹을 단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공유하는 선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²⁴⁾

5. 결론

이 연구는 공적인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여전히 요원해 보이는 불안정한 사회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부단히 생존을 모색해야만 하는 청년들의 삶을 휴먼다큐멘터리의 방식으로 포착한 〈다큐프라임〉 4부작에 관한 상세한 텍스트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의 결과, 〈청년〉 연작은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옥조이는 현실에 관한 인식과 상황의 실태를 비교적 다양하게 포착해내면서, 청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과 일정 수준의 공적인 환기작용을 생성해내는 데 일조한다. 동시에 이 텍스트는 기성세대원이나 부모세대들에게 청년들이 현재 대면하는 그늘진 사회현실 속의 압박과 난점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보다 신실하고 포용적이며, 사안의 경험적이고 위태로운 측면을 알고자 하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유형의 메시지를 설파하기도 한다.

4부작으로 구성된 이 텍스트는 사회적 이동의 흐름이 상당 부분 막혀 있으며, 또한 기성세대가 구축한 위계질서 속에 놓여 있는 다수 청년들이 소망하는 평범함의 특성과 수준을 다양한 재현의 방식과 목소리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세대담론이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청년층 내부의 차이와 변주되는 현실에 관한 ‘동요하는’ 청년주체들의 행태와 정서를 근접된 방식으로 그려냈다는 성취를 보인다. 특히 이 연작은 ‘수도권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뤘던 기성의 청년담론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공장에서 노동하는 청년들의 모습이나 제도의 무책임 속에 위험에 노출되고 상처받은 젊음을 적지 않게 가시화하는 성취를 발현하기도 한다.

한편 여타 청년 휴먼다큐멘터리와 비교할 때,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연작이 차별적으로 주목한 지점이자 청년들의 목소리와 체험에 서사적인 방점과 핵심을 지향하는 기획의 복안은 일정한 ‘전향적인’ 효과를 생성해내기도 한다. 이는 청년들의 생생하고 절절한 목소리와 체험을 주요 질료로 삼고 스토리텔링의 핵심요인으로 배치함으로써, 때로는 사회적

24) 연구진의 판단으로, 이 연작에 등장한 일련의 청년 당사자들과 4부에 등장한 청년 정치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하고, 이들 간에 공유되거나 이견이 존재하는 단면들을 구체적으로 생성하는 유형의 복안이나 구상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가능성을 탐문하게도 된다.

타자나 정책의 대상 정도로 머물고 대상화되기도 하는 청년들에게 일정한 발화와 증언의 장을 제공한다. 그런 대안성의 추구하고 함께, 이 텍스트는 감정적인 공감을 호소하는 휴먼다큐멘터리의 장르적 특성과 연동되어 ‘청년 문제’를 일정한 거리를 둔 관찰의 사안이거나 혹은 계몽적인 태도로 설명해왔던 기존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런 재현의 과정에서 EBS의 〈청년〉 연작은 상이한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입지와 모색의 지난한 과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수준의 사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을 관찰하면서 그런 이력을 가진 청년이 능동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공적인 절차에 참여하는 단면과 그가 느끼게 되는 허탈감을 포착하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심화되지 못하는 경험적인 단면과 난점을 부분적으로 조명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양식적인 측면에서 네 파트 모두에서 지배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관조적 양식’의 강조와 활용은, 필사적으로 동시에 슬한 난점과 좌절을 맞보면서 생존을 추구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면모를 심화시켜 재현하는 차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며, 이들이 공유하는 상황과 입장을 주로 포착하면서 공감과 감정 이입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집중되는 노력을 보여준다.

또한 1부의 경우, 청년이 자신 앞에 놓인 불안정한 현실 앞에서 체념하고 좌절하는 감정들을 다소 감상적으로 재현하는 ‘은유적 양식’은 피사체의 상황을 긴 호흡으로 조명하지 못하며, 서사의 흐름 속에 일정한 고정된 역할을 발휘하는 대상 정도로 배치하는 관행적인 휴먼다큐멘터리의 서사 구조와 관습성 속으로 청년들을 가두어버리는 (역)효과를 일정하게 생성하기도 한다. 이 텍스트는 비가시적으로 존재했던 청년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재현함으로써 협소한 청년 범주에 대해 일정한 변화된 관심과 기획의 차별성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진전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의 행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활동이나 이들이 맞닥뜨리는 현실과 관련하여, 청년주체들의 애환과 냉소나 현실 속 갈등을 배태해내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과 같은 쟁점을 재현의 전략 내로 충분히 소환하지 못하는 단면을 드러낸다.

첨언하자면 특히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생존주의’, ‘탈존주의’, ‘독존주의’, ‘공존주의’ 등 다면적인 마음의 태도를 배태하고 있다는 김홍중(2016)의 현실지향적인 동시에 설득력이 상당한 논의를 고려할 때, 다기한 ‘마음의 레짐’을 구성하고 있는 청년주체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 다큐는 보다 숙고되고 진전된 성찰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수준에까지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청년들의 노동이나 노력에 가해지는 기성의 제도적인 홀대나 폭력적인 단면들이 개별 사례들을 통해 일정 부분 부각되고는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생성하는 제도 층위의 조명은 일부만 제시된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 공고하게 각인된 성

적 불평등에 대한 심대한 문제제기를 개진하는 담론들이 부상하면서 상당한 논전과 갈등을 배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연작이 재현하는 공간 속에서 ‘여성이자 청년’인 주체들이 겪는 차별적인 경험이나 불평등과 배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다 세분화된 방향으로 탐구되지는 못한다.

이 텍스트는 생존을 위해 불안한 동시에 필사적인 노력을 영위하는 청년들의 면모를 상당 부분 당사자들의 체험과 관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함으로써, 사회적 환기작용과 선한 의지가 결합된 주목할 만한 성취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텔레비전 휴먼다큐멘터리 장르에서 전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갈등과 쟁점의 정련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온건한 화법’과 ‘인간적 가치’의 강조와 같은 상대적으로 옅은 공감의 생성에 주로 집중하는 작업을 제공하면서, 이 기획은 ‘청년 문제’를 둘러싼 거시적인 동학이나 사회구조의 효과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암시적인 수준의 재현에 주로 한정되는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²⁵⁾

이 글을 맺기 전에, 이 연구가 지니는 한계에 관해 짧게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텔레비전 영역 내 청년을 주요한 탐색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휴먼다큐멘터리의 특성과 재현의 양상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개별 텍스트중심의 해독을 넘어, 보다 확장되고 복합적인 텍스트분석을 지향하였다. 또한 청년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일련의 다규 텍스트들과의 비교와 청년연구를 수행한 학술작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청년〉 연작이 발휘하는 재현작용을 중층적으로 진단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2015년 이후 제작된 다양한 청년다큐멘터리를 비롯한 관련 텍스트들의 구성과 차별성, 상호텍스트성의 특성과 재현전략의 차이와 명암 등을 보다 포괄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비교하면서 진단하는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와 동시에 이 작업은 수용자연구나 생산자연구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청년 당사자들이나 수용의 주체들이 어떤 유형의 해독이나 대응과 이견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분석이나 기획의 의도와 관련 복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문해내는 작업은 조직적으로 도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기획은 학부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고 담당 교수와 상당 기간에 걸친 협업을 통해서 구현한 작업이다. 특히 참여의 주체들은 자신들의 근 미래와 직결된 주제를 재현하는 텍스

25) 예컨대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논의나 청년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구직이나 주거 또는 다른 유형의 지원 정책을 논하는 작업을, 그러한 관점의 추상성이나 기존의 관성을 경계하면서도, 전술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복안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는 방송다규의 형식이 아닌 생존리포트나 장기적인 탐사보도와 내러티브 저널리즘의 방식으로 이 시대 청년들의 현황과 좌절을 매우 다면적으로, 동시에 미시적인 관찰과 사례분석, 그리고 정책적인 함의 등을 조합해낸 주요 일간지들의 특집과-예를 들면 경향신문의 〈부들부들 청년〉 기획 등과-비교해도, 청년 연작이 보이는 한계라고 판단된다.

트를 직접 분석하는 동시에 협의를 도모하면서, 상호 간의 교섭과 이해 또한 활발하게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런 동시에 필진은 지식자본과 문화자본이 상이하며 관점의 차이 또한 일부 존재하는 연구 참여자들 간의 공동의 노력을 조합한 작업으로, 청년의 재현과 다규양식성을 둘러싼 더욱 숙성된 논점의 추구와 개념의 심화된 해독에 있어서, 이 글이 일련의 불균등한 단면이나, 심화되지 못한 해독을 제공하는 한계도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청년들의 삶에 관한 분석적이고 ‘대화지향적인’ 작업의 의의는 현재 이들이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긴급하며 공적인 함의 또한 결코 적지 않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이 연구의 문제의식과 제한점을 보완하는 후속 작업들이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에 언론학과 문화연구, 그리고 영상학 영역 내 연구자들이 청년을 주제로 한 일련의 기획을 더욱 다양한 접근법과 관점을 활용하면서 성취하며, 보다 정련된 후속 효과들을 낳기를 고대하면서, 이 긴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강상현 (2012). 공영방송의 미래와 비전. 최영목 정용준 조항제 외 (편), <공영방송의 이해> (407-438쪽). 서울: 한울.
- 강승엽 (2001). TV다큐멘터리 영상물에 있어서 나레이션과 인터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 진영상학회>, 4권, 85-93.
- 강정석 (2015). '이행기 청년'의 문제실정과 삶의 진로에 대한 연구. <진보평론>, 65호, 247-276.
- 강정석 (2018). 가족을 만들 수도, 가족을 떠날 수도 없는 청년. <황해문화>, 98호, 54-72.
- 경향신문 (2017, 6, 11). "우리는 일화용 컵처럼 버려졌다"...삼성전자 '메탄올 실명' 피해자의 유엔 연설.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7). <부들부들 청년>. 서울: 후마니타스.
- 김상민 외 (2013). <속물과 잉여>. 서울: 지식공작소.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권 1호, 5-68.
- 김선기 (2018). 청년-하기를 이론화하기: 세대 수행성과 세대연구의 재구성. <문화와 사회>, 25권, 161-210.
- 김애린 외 (2016). '헬조선 현상'의 특징과 함의를 분석하기. <한국언론정보학보>, 80호, 40-114.
- 김유열 (2014). <EBS 다큐멘터리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연구: <EBS 다큐 프라임>과 <KBS 스페셜>, <MBC 스페셜>, <SBS 스페셜>을 비교하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혁조 (2011). 혼종적 다큐멘터리 '마리온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6권 1호, 7-32.
- 김홍중 (2009). <마음의 사회학>. 서울: 문학동네.
- 김홍중 (2016). <사회학적 파상력>. 서울: 문학동네.
- 류형림 (2015). 청년담론 속에서 '여성' 구출하기: 20~30대 여성들의 일 이야기. <함께 가는 여성>, 220호, 5-8.
- 민환기·이유빈 (2009). 다큐멘터리 재현양식 연구: <위낭소리>와 <택시 블루스>를 중심으로. <영상 예술연구>, 15호, 95-124.
- 배은경 (2015). '청년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젠더와 문화>, 8권 1호, 7-41.
- 송동욱·이기형 (2017). 불안정한 현실과 대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관한 질적인 분석: '삼포세대',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호명에 대한 청년주체들의 체화된 대응과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4호, 28-98.
- 신정아 (2010). 디지털 다큐멘터리와 '아우라'의 재현. <글로벌문화콘텐츠>, 4호, 307-313.
- 심훈 (2012). KBS<인간극장>에 나타난 다문화 방영물 서사 분석: 이야기 구조와 등장인물, 발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4호, 184-209.

- 양정혜·노수진 (2012). 휴먼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장애인: KBS 인간극장에 나타난 장애인 내러티브 분석. <한국방송학보>, 26권 3호, 371-415.
- 엄기호 (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서울: 푸른숲.
- 오마이뉴스 (2018, 3, 10). 핸드폰 만들다 실명된 청년들, 기자는 위장취업을 했다.
- 오원환·허철 (2010). '소프트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상미학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8권 4호, 103-143.
- 오은진·김소연 (2016). 청년층 여성의 경력단절. <사회과학논집>, 47권2호, 141-166.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서울: 개마고원.
- 이광석·윤자형 (2018).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담론의 전개 양상. <언론과 사회>, 26권 2호, 77-127.
- 이경화 (2009). 방송구성대본의 실제와 제작. <문학선>, 22호, 324-354.
- 이노미 (2015). KBS <이웃집 찰스>에 나타난 국내거주 외국인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갈등 사례 연구.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13권 5호, 135-150.
- 이상규·홍석경 (2014). '강북'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문화와 계급 정체성 형성에 대한 영상방법론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68호, 87-129.
- 이양숙 (2016). 메트로폴리스의 시공간과 청년의 감정. <외국문학연구>, 62호, 91-115.
- 이영주·김진혁 (2009). 지식 저널리즘과 텔레비전 문화: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1권 2호, 49-80.
- 이우창 (2016). 헬조선 담론의 기원: 발전론적 서사와 역사의 주체 연구 1987-2016. <사회와 철학>, 32호, 107-158.
- 이종수 (2002). 한국 휴먼다큐멘터리의 시대성과 사회성-다큐멘터리 내용, 형식의 변화와 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0권 2호, 35-72.
- 이종수 (2004). <TV 리얼리티>. 서울: 한나래.
- 이현숙 (2012).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의 특성: <인간극장>, <휴먼다큐멘터리 사랑>, <다큐멘터리 3일>의 신 묘사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권 5호, 233-270.
- 장민정 (2014).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휴먼 다큐멘터리 EBS <다문화 고부 열전>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권, 67-86.
- 정수남·김정환 (2017). '잠재적 청년실업자'들의 방황과 계급적 실천. <문화와 사회>, 23권, 195-264.
- 조문영 외 (2017). <헬조선 인 앤 아웃: 떠나는 사람, 머무는 사람, 서성이는 사람, 한국 청년 글로벌 이동에 관한 인류학 보고서>. 서울: 눌민.
- 조한혜정 외 (2016). <노오력의 배신>. 파주: 창비.
- 차민철 (2014). <다큐멘터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천정환 (2018). 세대담론 2018, 그리고 영화 <1987>. <역사비평>, 122호, 317-339.

- 천주희 (2016).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대한민국 최초의 부채 세대, 빚 지지 않을 권리를 말하다>. 파주: 사이행성.
- 최영송 (2014). 들뢰즈의 다큐멘터리 이미지. <한국방송학보>, 28권 1호, 245-280.
- 최은주 (2015, 12, 15). 언제까지 '노오력' 해야 할까. <시사IN>.
- 최종렬 (2018). <복학왕의 사회학: 지방 청년들의 우짚는 소리> 서울: 오월의봄.
- 최현주 (2006). 다큐멘터리 장르에 따른 서사구조 비교분석. <언론과학연구>, 6권 2호, 415-441.
- 추주희 (2017). 전남지역 청년여성의 고용 불안과 일 경험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27권 3호, 105-148.
- 프레시안 (2017, 12, 5). 메탄을 실명 피해자, 박근혜 정부 노동부장관 고발.
- 한겨레 (2017, 1, 9). 여성이 덜 받는 임금 100만 원 중 60만 원, '단지 여자라서'.
- 한선 (2013). 네트워크 시대 '경제적인 것' 되기 (becoming)의 통치술: '공모전 참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7권 3호, 431-454.
- 홍연주 조인희 (2011). 한국 다큐멘터리 장르의 비교분석 연구: 시사 다큐멘터리 및 휴먼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5권 2호, 28-33.
- 홍유리 (2017). 수행적 다큐멘터리에서 다큐멘터리의 수행적 실천으로. <문화과영상>, 18권 2호, 367-394.
- 홍의권 (2013). EBS 다큐프라임 <기생(寄生)-PARASITE> 자연과학 다큐멘터리의 촬영기법과 제작기. <방송과 미디어>, 18권 4호, 9-21.
- 홍지아 김훈순 (2010).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TV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544-583.

Barnouw, E (1993). *Documentary: A history of the non-fiction film*. 이상모 (역) (2000).

<세계다큐멘터리 영화사>. 서울: 다락방.

Bruzzi, S. (2000). *New documentary*. London, UK: Routledge.

Gade, R., & Jerslev, A. (Eds.) (2005). *Performative realism*. Copenhagen, DK: Museum Tusculanum Press.

Nichols, B (2001). *Introduction to documentary*. 이선화 (역) <다큐멘터리 입문> (2005). 서울: 한울아카데미.

Niney, F. (2009). *Le documentaire et ses faux-semblants*. Paris, FR: Klincksieck.

Renov, M. (2004). *The subject of documentary*.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투고일자: 2018. 9. 30. 게재확정일자: 2018. 11. 5. 최종수정일자: 2018. 11. 21.

On Critically Examining the Roles and Signifying Features of a Landmark Human Documentary Text on South Korean Youth by EBS

Dongwook Song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Hyeon Heo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Seungyeon Ki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Sujin Kim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Juyeong Shin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Jinhyeong Park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Kyongah Hwang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Keehyeu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In South Korea, most of young adults nowadays would encounter extreme socio-economic uncertainties, hardships, and fierce competitions among them. At the same time, a number of them tend to express deep frustration, anger, restlessness, and disillusionment toward the society in general. This alarming society-wide phenomenon has also been dealt with in the realm of local public television sector.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ose production crews in EBS have started to present several human documentary texts in which they would illuminate the varied lives of youth in agony. With that in mind, this study focuses on a four-part documentary text <Sidae Tamkoo> through a detailed textual analysis. We especially look into the various documentary modes and representational strategies in this text as a way of keenly evaluating the diverse roles of, and limits in such documentary-making efforts in the pursuit of representing and contextualizing 'youth-at-risk' in contemporary South Korea.

KEYWORDS youth-at-risk, the varied roles of human documentary, documentary modes, critical textual analysis, context